

# 시 문학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내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끌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찢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어린 가슴이 짝기\*도 전이다.  
어디서 쫓달알만한 알에서 가제\*개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백석, '수리(修羅)'

(나)

나는 일손을 멈추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살아 있는 보람이란 이것뿐이라고-  
하루살이의 광무(狂舞)여.

하루살이는 지금 나의 일을 방해한다.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생각한다-  
하루살이의 유희여.

너의 모습과 너의 ㉠몸짓은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우나  
소리없이 가고 소리없이 날으다가  
되돌아오고 되돌아가는 무수한 하루살이  
-그러나 나의 머리 위의 천장에서는 너의 소리가 들린다-  
하루살이의 반복여.

불 옆으로 모여드는 하루살이의  
벽을 사랑하는 하루살이여.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에게로  
모여드는 모여드는 하루살이여.  
-나의 시각(視覺)을 쉬이게 하라-  
하루살이의 황홀여.

-김수영, '하루살이'

(다)

한 마리의 비둘기가  
슬금슬금 밀치며 지분거린다.  
㉡한 마리의 비둘기가 한 마리의 비둘기를.  
둘레를 빙글빙글 돌며 쫓고 있다.  
무슨 말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이윽고  
한 마리는 알아차리고 조용히 몸을 숙이며  
㉣두 날개를 펼친다. 한 마리는  
㉤잔등 위에서 어기찬 하늘님이 되었다. 그뿐  
무슨 말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태초는  
다만 ㉦몸짓으로 열리었던 것을.

-박남수, '몸짓'

\*어니젠가 : 어느 틈엔가

\*짝기 : '작다'(마음이 가라앉다)의 방언

\*찢릿한다 : 저런다

\*가제 : 갓. 이제 막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생활의 단면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있다.
- ② 생활 주변의 소재를 관찰하여 인간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
- ③ 비극적 역사를 극복하려는 화자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이름답고 풍요로운 인간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 있다.
- ⑤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2. (가)의 3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세월이여! / 소금보다도 짜다는 / 인생을 안주하여 / 주막을 나서면 // 노을 비친 길은 / 가없고 길고 가늘더라만, // 내 입술이 닿은 그런 사발에 / 누가 또한 닿으랴 / 이런 무렵에.

-김용호, '주막에서'

- ② 뉘라 알리 / 어느 가지에서는 연신 피고 / 어느 가지에서는 또한 지고들 하는 / 움직일 줄 아는 내 마음 꽃나무는 / 내 얼굴에 가지 뻗은 채 / 참말로 참말로 / 사랑 때문에 / 햇살 때문에 / 못이겨 그냥 그 / 웃어진다 울어진다 하겠네.

-백재삼, '자연'

- ③ 아야, 정(情) 하늘이 높은 줄만 알았더니 / 너의 이마보다는 낮다. // 아야, 현(恨) 바다가 깊은 줄만 알았더니 / 너의 무릎보다는 얕다. // 손이야 닳든지 다리야 짧든지 / 정(情) 하늘에 오르고 현(恨) 바다를 건느랴면 / 너에게만 안기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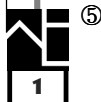
-한용운, '청천한혜'

- ④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쫓겨가리며 / 가는 길 / 신을 벗으면 / 버드나무 밑에서 지가다베를 벗으면 /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 가도 가도 천리(千里), 먼 전라도 길.

-한하운, '전라도 길'

- ⑤ 한 마리 개미를 관찰한다 // 돋보기로 보는 개미 / 흐릿하게 확대되어 / 어지러운 마음속에 사로잡힌다 // 얼마나 추웠을까? // 초점을 맞춘다

-이윤학, '연민'



# 시 문학

### 3. (나)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연의 끝 행에 대상이 화자에게 주는 의미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② '일손', '일' 등의 시어는 화자가 끊임없이 일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 ③ 2연에서는 역설을 통해 '나'의 일상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은 하루살이와 대비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⑤ 대상의 특징을 반복하여 하루살이에 대한 감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 4. (나)의 ㉠과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은 정신과 대립되는 몸을 의미한다.
- ② ㉠은 자유를 위한 화자의 주체적인 노력이고, ㉡은 문자 이전의 기초적인 전달 수단이다.
- ③ ㉠은 인간과 동화되고 싶은 하루살이의 행동이고, ㉡은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이다.
- ④ ㉠은 화자에게 변화의 욕망을 일깨우는 행동을 의미하고, ㉡은 모든 것의 근원을 의미한다.
- ⑤ ㉠은 발전 없이 살아가는 화자를 상징하고, ㉡은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과정을 의미한다.

### 5. (다)의 ㉢~㉤ 중 <보기>의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보기**

시가 일상적 행 구성을 파괴하여 시적 긴장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간 걸침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시인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으로 배열되어야 할 어구를 다음 행에 걸쳐 놓는 것을 말한다. 시인은 이 기법을 통해 정상적인 흐름의 행 배열이 갖는 식상함을 극복하고 주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10)

**(가)**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서 냇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웃자락이 문 들썩이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 들썩이에 걸린 웃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딴 불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 때야야 ㉣매운 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서정주, '신부'

**(나)**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곳 먼 나라를 뚫어지도록 바라다보면 해가 저물어 밤은 깊은데 하염없어라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만 귀에 적시어 눈썹 기슭에 번지는 불꽃 피눈물 들어 어룡진\* 동정\* 그리운 사연 아뢰려하여 병어리 가슴 쥐어뜯어도 헛바늘일래 말을 잃었다 땅을 구르며 몸부림치며 궁그르다가 다시 일어나 열리지 않는 말문이런가 하늘 우러러 ㉠돌이 되었다.

-김관식, '석상의 노래'

**(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뎛들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쏜 실을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베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압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 베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 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연인이,  
 유방도 빼앗기고 치녀막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뎛들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갈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뎛들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이.

-문병란, '직녀에게'

\*어룡진 : 얼룩진                      \*동정 : 한복에서 저고리 깃 위에 덧대는 흰 형겅 오리

### 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각각 하나의 설화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
- ⑤ (가)~(다)는 행과 연의 구분 없는 산문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시 문학

7. 다음을 (가)의 신령이 죽은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가정할 때, 내  
 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게  
 당신과 결혼하던 날 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소 ①긴장했던 탓인  
 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소 그래서 급하게 방을 나가려는데 뒤에서 누  
 군가 나의 옷을 잡아당기지 않겠소 그때 난 무척 당황했소 ②그건 당신이  
 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③평소 얌전하고 순수하  
 다고 여겼던 당신이 나의 옷을 잡아당기는 음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니 견  
 디기 힘들었소 그래서 그때 바로 당신 곁을 떠나기로 했소 ④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당신의 정결함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당신을 찾아 다녔소 ⑤  
 이승에서는 인연이 끝났지만 저승에서 다시 만나 행복한 부부로 살시다.  
 남편 △△

④

8. ㉠~㉣ 중 (나)의 ㉠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②

9.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945년 광복 후에도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분할 점령하여 좌우의 이  
 태올로기 대결장으로 분단시킨 뒤 한국 전쟁 3년의 고통을 안겨 주었고  
 휴전 협정 50년의 긴 세월은 한국을 지구촌 최고의 불안전 국가로 만들  
 어 버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문학은 외국의 세력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민족적 자주성에 의한 독립과 민족 통일 완성 등을 지향해야 한  
 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 문학의 이념이며 생활 감정이고 정서일 것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 ① 민족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군!  
 ② 우리 민족의 전통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창조적 계승을 소망하는 노래군!  
 ③ 세계화 시대에 문화적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군!  
 ④ 남과 북의 경제 교류를 통해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자는 열망을 담고 있군!  
 ⑤ 시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을 만들어 가자는 의지를 담았군!  
 ①

10. <보기>는 (다)를 원적으로 한 대중 가요의 노랫말이다. (다)를 <보  
 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 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노뿔들을 놓아  
 -후렴-  
 그대 손짓하는 연인아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뿔들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인아 연인아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박문옥 작곡, 김원중 노래, '직녀에게'

- ① 전체 시행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선별할 필요가 있었어!  
 ② 노래의 길이를 고려해 새로운 노랫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③ 노랫말이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몇몇 시어의 위치를 바꿔야겠어!  
 ④ 대중가요임을 고려해 과격하고 선정적인 시어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어!  
 ⑤ 후렴구를 통해 시인의 창작 의도가 원작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15)

(가)

우리집도 아니고 /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最後)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頰)\*을 다니면서까지 /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주는 말도 없었고 / 아무elman(灣)\*의 파선도  
 설통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쓰시잖는 두 눈에 /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停止)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醫員)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엮디어 /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沈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나)



# 시 문학

## 15. (다)를 <보기>에 제시된 관점에 따라 이해한 것은?

### 보기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해석하는 효용론에서는 작품 해석이 수용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용자는 단순한 독자의 의미를 넘어서 작품 속에서 즐거움과 유용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며 읽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 ①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
- ② 시인의 어린 시절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다면 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 ③ 지금은 거의 사라져 보기 힘든 물감장수가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군.
- ④ 화자의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 나도 이제부터는 따스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 ⑤ 산업화 시절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반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네.

### ④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6~20)

### (가)

여수(旅愁)에 잠겼을 때, 나에게겐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搖鈴)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어!  
 ㉡요지경(搖池鏡)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 속에 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 꿀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문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괴로운 행려(行旅)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달팽이 각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알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너무나, 빼없는 마음으로  
 ㉥오-너는 무슨 두 빨따귀를 휘저어 보는 것이냐!

-오장환, '여수(旅愁)'

### (나)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위소리 요란한 옛장수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이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미 수북한 쇠잔마당을 /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 삶은 때로 애달기도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되어 떠나려네

-신경림, '고향길'

### (다)

저 산벚꽃 핀 등성이에 / 지친 몸을 쉴까  
 두고 온 고향 생각에 / 고개 짓는다.

도피안사(到彼岸寺)에 무리지던 / 연봉홍빛 꽃너울.  
 먹어도 허기지던 / 삼춘(三春) 한나절.

뻘에 역겨운 / 가구가락(可口可樂)\* 물 냄새.  
 구국구국 울어대는 / 뱃바들기 소리.

- [A]
- 산벚꽃 핀 등성이에
  - 뻘을 물을까.
  - 소태같이 쓴 입술에
  - 풀잎 씹힌다.

-민영, '용인 지나는 길에'

\*노스타르자 : 노스탤지어(nostalgia).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가구가락(可口可樂) : '코카콜라'의 한자식 표기

## 16. (가)~(다)에 나타난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살아온 삶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변질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⑤ 자신을 구원해 줄 대상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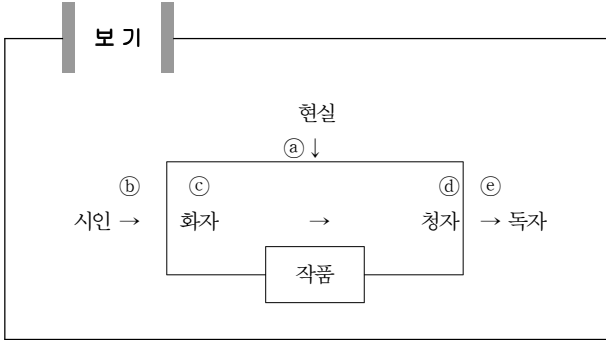
## 17. (가)~(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나)와 (다)를 바탕으로

㉦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두운 밤에 뜬 별을 보며 희망을 갖는 옛장수
  - ② 짝사랑하는 여자 아이를 몰래 훑쳐보는 사내 아이
  - ③ 쥐오줌으로 벽이 얼룩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꼬마
  - ④ 서구 문화로 오염된 현실에 쓴 입맛을 다시는 한 남자
  - ⑤ 출궁기 때 진달래 꽃잎을 따먹으며 허기를 달래는 아이들
- ①

# 시 문학

18. (가)의 ㉠~㉣를 <보기>의 각 요소와 관련지어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를 통해 떠돌이 삶을 살아가야 했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② ㉡ : ㉣는 시인이 당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를 통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서글퍼하는 화자를 발견할 수 있다.
  - ④ ㉣ : ㉡에 주목하면 이 시의 실질적인 청자가 의인화된 달팽이임을 알 수 있다.
  - ⑤ ㉣ : ㉡를 통해 볼 때,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독자가 깊은 공감을 할 것이다.
- ④

19. (나)의 ㉠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인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언제든 가리 나중엔 / 고향 가 살다 죽으리 / 메밀꽃이 하이얗게 피는 촌 / 조밥과 수수엿이 맛있는 고을 / 나뭇짐에 함박꽃을 꺾어오던 총각들  
-노천명, '망향'
  - ② 원목을 두들기는 / 통소리, / 강원도에서 날던 / 새가 / 울며 가버린 / 아득한 / 삼림에 / 희디흰 빛이 자꾸 일면서 / 가만한 / 옛 고향의 소리도 살아나온다.  
-정공채, '망향'
  - ③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도 // 산쟁이 알을 품고 / 뼈꼭이 제철에 울건만 // 마음은 제고향 지니지 않고 /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정지용, '고향'
  - ④ 마을아 역센 풀아 무너진 흙담들아 / 언젠가 돌아가리라 너희들 물 틈으로 / 나 또한 한 많은 물방울 되어 세상길 흘러 흘러 /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썽이리.  
-이동순, '물의 노래'
  - ⑤ 돌아가리라 / 햇빛 속을 지나던 이슬비 / 아카시아꽃 흰눈처럼 날리며 / 무지개 피던 샘재 // 밤이 먼 / 하늘 자락 불태우며 별빛 쏟아지던 / 해동 괴수원 / 손가락 기락에 꽃물 들이던 / 그 원두막으로.  
-이난수, '고향에'
- ③

20. (다)의 [A]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산뿔꽃 핀 등성이에 / 죽고 싶어도 //  
변해 버린 현실에 / 입맛만 쓰네.

- ① 운율을 조성하여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 ②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기 위해
  - ③ 수미상응을 고려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 ④ 문법의 틀을 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 ⑤ 화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26)

(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 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달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 흠뻑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나)

네가 벌써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으니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다.  
운전을 배울 때는 /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을 / 네가 대견스러웠다.  
면허증은 무엇이냐 따 두는 것이 / 좋다고 나도 여러 번 말했었지.  
이제 너는 차를 몰고 달려가는구나.  
철 따라 달라지는 가로수를 보지 못하고  
길가의 과일 장수나 생선 장수를 보지 못하고  
아픈 애기를 업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교통 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  
너의 눈은 빨라지고 / 너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앞으로 기름값이 또 오르고  
매연이 눈앞을 가려도 / 너는 차를 두고

# 시 문학

걸어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  
 걸거나 뛰고 /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네가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가볍게 떨어져 가는 것 같아 / 나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김광규,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다)  
 열구리에서 아까부터 / 무언가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①전동차에서 내리려고 /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리기 뻔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단했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리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김기택, '벽'

## 21. (가)~(다)와 <보기>를 관련지어 감상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 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① <보기>에서, (가)의 '네'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안'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보기>의 '나'는 (나)의 '교통 순경'과 유사한 인물이었겠군.
- ③ <보기>와 (다)의 '벽'은 '무관심으로 인한 단절감'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④ (가), (다)의 '할머니'는 <보기>의 '아저씨'에 해당되었겠군.
- ⑤ (가), (나), (다)와 <보기>는 공통된 문체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22. <보기>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할 때, (가)의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이 시에 제시된 '눈'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감상이 가능하다. '추위'와 관련지어 부정적 의미로도 읽을 수 있었지만, 슬픔을 모르는 대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긍정적 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겠다.

- ① 지금 눈 내리고 /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육사, '광야'
- ②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 씨룩씨룩 눈꽃은 쌓이고 / 그래 지금은 모두들 /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 ③ 겨울은, / 바다와 대륙 밖에서 /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 이제 울 /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 우리들 가슴속에서 / 움트리라.  
-신동엽, '봄은'
- ④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 눈 내리는 풍경 /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고은, '눈길'
- ⑤ 우리가 눈발이라면 / 허공에서 쭈뼛쭈뼛 흩날리는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 사람이 사는 마을 / 가장 낮은 곳으로 /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23. (가)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가야 햇살에 녹아내리는 봄눈을 보면  
 이 세상 어딘가에 사랑은 있는가 보다  
 아가야 봄하늘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면  
 이 세상 어딘가에 눈물은 있는가 보다  
 길가에 홀로 핀 애기똥풀 같은 / 산길에 홀로 핀 산삼버귀 같은  
 아가야 너는 길을 가다가  
 한 송이 들꽃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도 어둠의 계절은 깊어 / 새벽하늘 별빛마저 저물었나니  
 오늘도 진실에 대한 확신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아직 없나니  
 아가야 너는 길을 가다가 / 눈물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새벽에 아가에게'

- ① 부정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 ② 청자의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자.
- ③ 전달하려는 중심 내용은 유지하도록 하자.
- ④ 청자를 충고와 비판의 대상에서 애정과 관심의 대상으로 바꾸자.
- ⑤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어조에서 대상에게 권유하는 어조로 바꾸자.

# 시 문학

## 24. (나)를 <보기>의 편지글로 바꾼다고 할 때 (나)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보기**  
아들아.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는 말이 있단다.

느리게 사는 지혜를 갖기 위해 나는 너에게 몇 가지 삶의 태도를 권유하고 싶다.

㉠ 한가로운 거닐 것 -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발길 닿는 대로 가 보자. 아무 생각도 목적도 없이 걷고 있지만 어느덧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들을 것 -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아라.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란 걸 느낄 때 삶은 풍요로워진단다.

㉢ 볼 것 - 옆이나 뒤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경쟁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항상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며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기다릴 것 - 네가 꿈꾸는 것이 삶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조바심 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 미래는 곧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다.

㉤ 마음의 고향을 간직할 것 - 개울에서 발가벗고 떡 감던 일과 동무와 손잡고 걸던 먼지투성이 신작로..... 지나간 흔적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애착을 느끼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③

## 25. (나), (다)를 동일 화자의 시로 가정할 때, (나)에서 (다)로 변한 화자의 태도를 바르게 파악한 것은?

- ① 객관적 관찰을 하다가 주관적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② 구체적 정황을 묘사하다가 보편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③ 감정을 절제하고 담담하게 얘기하다가 울분을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자신의 심경을 독백체로 밝히다가 청자를 향해 대화의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⑤ 대상을 향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을 포함한 집단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⑤

## 2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비해 ㉡는 속도와 관련이 깊다.  
② ㉠와 ㉡는 교통수단의 대중적 성격에 차이가 있다.  
③ ㉡보다 ㉠은 ‘문명의 이기(利器)’라는 속성이 강하게 부여된다.  
④ ㉡는 대립적 사물이 제시되어 있지만 ㉠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시의 맥락에서 ㉠가 긍정적 어감이라면 ㉡는 부정적 어감을 띤다.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7~31)

(가)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였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때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거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것이다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각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김기택, '멸치'

(나)

삶은 계란의 껍질이 / 벗겨지듯 / 목은 사랑이 /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않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 움직이듯  
목은 사랑이 /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 목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김수영, '파발 기에서'

# 시 문학

(다)

밤의 식료품 가게 /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개의 혀가 /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딸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 북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최승호, '북어(北魚)'

## 27. <보기> 중 (가)~(다)의 작가가 창작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했 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ㄱ.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친근한 소재를 활용해 보도록 해야겠군.
- 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작품화하도록 해야겠군.
- ㄷ. 사물의 표면적 속성에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해야겠군.
- ㄹ. 힘들게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평화와 안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해야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②

## 28. (가)의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은?

- ① 버려야 할 것에 집착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다.
- ② 인간은 현대 사회에서 유연함과 생명력을 잃고 있다.
- ③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 ④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⑤ 모든 사물은 화려함과 초라함이라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②

## 29. 밑줄 친 시어들 중, 그 이미지가 (가)의 '바다'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청무우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기는 / 어린 날개가 물결  
 에 절어서 /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② 향단이 그랫줄을 밀어라. / 머언 바다로 / 배를 내어 밀듯이 / 향단야. //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 배갯모에 너이듯한 풀꽃더미로  
 부터, / 자갈한 나비 새끼 꼬꼬리들로부터 / 이주 내어 밀듯이, 향단야.

-서정주, '추천사'

- ③ 피아노에 앉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 / 끊임없이 / 열 마리씩 / 스무 마  
 리씩 / 신선한 물고기가 /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다. / 나는 바  
 다로 가서 / 가장 신나게 시퍼런 / 파도의 칼날 하나를 / 집어 들었다.

-전봉건, '피아노'

- ④ 누님의 치맛살 곁에 앉아 / 누님의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심심한 때는  
 / 골목을 빠져 나와 바닷가에 서자. // 비로소 가슴 울렁이고 / 눈에  
 눈물 어리어 / 차라리 저 달빛 반아 반짝이는 밤바다의 진정 할 수 없  
 는 / 괴로운 꽃비늘을 닦아야 하리. / 천하에 많은 할 말이, 천상의 많  
 은 별들의 반짝임처럼 / 바다의 밤물결되어 찬란해야 하리. / 아니 아  
 파야 아파야 하리.

-박재삼, '밤바다에서'

- ⑤ 아, 흥건하게 강물은 꽃에 젖어 흐르리 / 무지개 피에 젖은 아침 숲 짐승  
 울음. // 일체의 죽은 것은 떠내려가리 / 얼룩되는 배암 비늘 피발톱  
 독수리의, // 이리떼 비둘기떼 깃쪽지와 울대뼈의 / 피로 물든 일체는  
 바다로 가리. // 비로소 햇살아래 옷을 벗는 너의 전신 / 강이여, 강이  
 여. 내일에는 피땀짓. // 네가 하는 손짓을 잇을 수가 없어 / 강 흐름  
 뿔뿔이길 바다로 간다.

-박두진, '강'

③

## 30.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드러내었다.
- ②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③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강렬한 효과를 자아내었다.
- ④ 관념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하였다.
- ⑤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활용하여 그 속에 진실을 담아내었다.

①

## 31. (다)의 내용으로 보아, ㉠에서 비판하는 대상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무의미한 일에 매달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 ②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참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 ③ 타성에 젖어 새로운 것은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 ④ 삶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 ⑤ 이루지 못할 욕심을 따라 소박한 생활을 팽개쳐 버린 사람들

④

# 시 문학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2~36)

**(가)**

어리고 우환(迂闊)한 것은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길흥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짓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이 땀감이 되어,  
 세 홉 밥 다섯 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대인 승능으로 빈 배를 속일 뿐이로다.  
 생애 이러하다고 장부(丈夫) 뜻을 바꿀 것인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음망정 품고 있어,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니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고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비었는데 병(瓶)이 담겨 있오라.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굶주림과 추위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일단심(一丹心)을 잊겠는가.  
 분의 망신(奮義忘身)하여 죽어야 그만두겠다고 마음 먹어,  
 전대와 망태에 한 줄 한 줄 모아 넣고,  
 전쟁 5년 동안에 감히 죽고야 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 몇 백전을 치렀던가.  
 일신(一身)이 겨를이 있어 일가(一家)를 돌보겠는가.  
 늙은 종은 종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주는 것을 어느 사이에 생각할 것인가.  
 발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겠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몸소 밭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하다 할 이  
 없지마는,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 것인가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나)**

가뻘한 내 샷갓이 빈배와 같아 浮浮我笠等虛舟  
 한 번 켜다가 사십 년 평생 쓰게 되었네 一着平生四十秋  
 목동은 가벼운 샷갓 차림으로 소 먹이러 나가고 牧童輕裝驅犢犢  
 어부는 갈매기 따라 샷갓으로 본색을 나타냈지 漁翁本色伴沙鷗  
 취하면 벗어서 구경하던 꽃나무에 걸고 醉來脫掛看花樹  
 흥겨우면 들고서 다락에 올라 달 구경하네 興到携登籬月樓  
 ㉠속인들의 의관은 모두 걸치장이지만 俗子依冠皆外飾  
 하늘 가득 비바람 쳐도 나만은 걱정이 없네 滿天風雨獨無愁

-김삿갓, '샷갓을 읊다(詠笠)'

**(다)**

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濁醪溪邊(탁료계변)\*에 錦鱗魚(금린어) | 안주로다.  
 이 몸이 閑暇(한가)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江湖(강호)에 녀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없다  
 ㉡有信(유신)은 江波(강파)는 보내느니 브람이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江湖(강호)에 ㄱ울이 드니 고기마다 솔져 있다.  
 小艇(소정)에 그물 시러 흘리 띄어 더더 두고,  
 이 몸이 消日(소일)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江湖(강호)에 겨월이 드니 눈 기쁘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솔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맹사성, '강호사시가'

\*신야경수(莘野耕叟) : 들에서 밭갈던 늙은이. 탕왕의 제상이 된 이유를 말함  
 \*농상경옹(隴上耕翁) : 밭갈던 늙은이. 진나라의 진승을 말함  
 \*탁료계변(濁料溪邊) :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활기 넘치는 시골 생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양반들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③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색채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33. (가)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할 때 새롭게 추가된 것은?**

- ① 영화가 시작되면 몇몇 초가집 중 유독 굴뚝 연기가 많은 집을 멀리서 점 점 가깝게 비춘다.
- ② 영화의 주요 배경은 누추한 차림의 주인과 나이든 하인이 살아가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선택한다.
- ③ 승능으로 식사를 하는 주인공의 얼굴 표정을 통해 반드시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④ 영화의 중반부에 주인이 전쟁터에서 왜적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을 회상으로 삽입한다.
- ⑤ 영화의 후반부에 늙은 하인을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고 소도 없는 궁핍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34. (나)와 <보기>를 비교했을 때, (나)에서 두드러진 것은?**

**보기**  
 강(江)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 리 //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놀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① 감각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 ② 색채의 대비를 강조해서 표현하였다.
- ③ 화자와 작자와의 관련성을 강화하였다.
- ④ 민요조의 리듬을 사용하여 운율을 살렸다.
- ⑤ 수미상관을 통해 형식적 안정을 꾀하였다.

# 시 문학

### 35.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수마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각 수 초장은 부조리한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각 수 중장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④ 각 수 종장 전반부는 자연과 화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각 수의 후반부는 동일한 내용의 구절을 통해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②

### 36.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이 부분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괴로움이 잘 드러나 있다. 즉 '가난'이라는 현실과 '가난한 삶 속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살겠다'는 신념 사이에서 오는 괴로움과 탄식이 가장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7~41)

#### (가)

향규(香鬪)의 일이 없어 백화보(百花譜)를 펼쳐보니,  
 ㉠봉선화 이 일흔을 뒤라서 지어내고,  
 신선의 옥소(玉簫) 소리 자연(紫煙)으로 사라진 후에,  
 규중(閨中)의 남은 인연(因緣) 일지화(一枝花)의 머물렀으니,  
 ㉡유약(柔弱)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 넘노는 듯.  
 아름다운 붉은 꽃은 신선의 옷을 펼쳐놓은 듯.  
 백옥섬 조흔 흙에 촘촘히 심어내니,  
 춘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醉)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하네.  
 정정(貞靜)한 기상을 여자 외에 뉘 벗을 하겠는가.  
 옥난간(玉欄干)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紗窓)을 반개(半開)하고 차환(叉鬢)\*을 불러내어,  
 다 핀 꽃을 따다가 수장자(繡箱子)에 담아 놓고,  
 여공(女工)을 그친 후의 안채에 밤이 깊고, 남촉(蠟燭)이 밝았을 때  
 차츰차츰 꽃꽂이 앉아, 흰 구슬을 갈아 비수어  
 방옥(氷玉)같은 손 가운데 흐드러지게 개어내니,  
 ㉣파사국(波斯國)\* 저 제후(諸侯)의 좋아하는 홍산궁(紅珊瑚)을  
 헤쳐 놓은 듯,  
 깊은 궁궐에서 절구에 홍수궁(紅守宮)\*을 빻아 놓은 듯,  
 가늘고 고운 열 손가락에 수놓는 실로 감아내니,  
 종이 위의 붉은 물이 미미(微微)하게 스며드는 모양.  
 ㉤가인(佳人)의 얇은 뺨에 붉은 이슬이 어린 듯,  
 단단히 봉한 모양 비단에 옥으로 쓴 편지를 선녀에게 부친 듯.

-작자 미상, '봉선화가'

#### (나)

홍보기가 싫다마는 저 부인(婦人)의 거동(舉動)보소. 시집간 지 석 달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내네. 계엄할사 시아버니 암상할 사 시어미라  
 고자질에 시누와의 엄숙하기 만동서라. 요악(妖惡)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에  
 드세도다 남녀노복(男女奴僕) 들며나며 흙구덕에 남편(男便)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어라.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시집살이 못 하겠네 간수 병을 기울이며  
 차마 쓰고 내닫기와 보점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僧)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長竹)이 벗이 되고 들구경 하여 불가. 문복(問卜)하기 소일(消日)이라 걸으로는 시름이요  
 속으로는 탄 생각에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라. 시부모가 경계(警戒)하면  
 말 한 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하면 뒤받아 맞닥수요, 들고 나니 초롱군에  
 팔자나 고쳐 불가. 양반 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色酒家)나 하여 불가.

-작자 미상, '몽부가'

#### (다)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을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b>시집살이 개집살이</b>
앞발에는 당추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 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찼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아버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뽀족새요,
시아지비 뽀족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새세.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차환(叉鬢) : 가까이 두는 젊은 여자 중  
 \*파사국(波斯國) : 페르시아

\*홍수궁(紅守宮) : 붉은 도마뱀  
 \*할림새 : 남의 허물을 잘 고해바치는 새

# 시 문학

37. <보기>는 한국고전문학의 주제의 세미나 초대장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고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발표 주제 : ( )
- 일시 : 2006년 5월 ○일 오후 6시
- 장소 : 한국고전문학회 대강당
- 주최 : 한국고전문학회
- 진행 : 개회 선언, 주제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 사회자의 정리, 폐회

- ① 벼슬과 사대부 문학
  - ② 봉건적 사회 구조와 여성
  - ③ 정치 현실과 여성의 참여
  - ④ 사대부 가정의 여성의 지위
  - ⑤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여성의 삶
- ⑤

38.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의미가 잘 통하는 것은?

**보기**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 남촌의 한량 개똥  
 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놓고 <중략> 자기에게 유리하면 남의 잘못된  
 말도 따지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제 친척들과는 화  
 목하지 못하며, 건강 해칠 일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으로 몸보신  
 하기와, 주색잡기를 모두 하여 한없이 돈을 함부로 쓰네.

-‘우부가’ 중에서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③

39. (나)를 바탕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부안’의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집살이 힘들다고 자살을 시도함
  - ②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몸치장을 함
  - ③ 점쟁이를 찾아가 점치며 시간을 보냄
  - ④ 시부모의 말을 받아 함부로 말대꾸함
  - ⑤ 남편이 데려온 첩을 모함하여 내쫓음
- ⑤

40. (다)의 화자가 <보기>와 같은 일기를 썼다고 할 때, ㉠~㉣ 중 화자가 가장 강하게 비판할 사람은?

**보기**

시집오기 전부터 주변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어서 어느 정도 각  
 오는 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일이 많은 것은 참을 수 있지  
 만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특히 나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  
 겠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건 정  
 말 참기 힘들다.

- ① ㉠ 시아버니      ② ㉡ 시어머니      ③ ㉢ 동세 하나
  - ④ ㉣ 시누 하나      ⑤ ㉤ 남편 하나
- ③

41. (다)의 시집살이 개집살이와 같은 발상으로 이루어진 표현은?

- ① “살구는 얼마나 먹었는고?” “아 씨 되어 보니 닷 말 셋 되입니다.” “거  
 신 것을 그리 많이 먹어. 그 놈은 날드라도 안 시건방질까 몰라.”
  - ② 百백川천洞동 겨티 두고 萬만瀑폭洞동 드러가니, 銀은 7톤 무지개, 玉  
 옥 7톤 龍룡의 초리, 셋들며 썸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 ③ 도련님은 입이 빠풀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가 없으  
 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 ④ 이씨의 사춘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춘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  
 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가세.
  - ⑤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절절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뚤한  
 놈도 없고 보니 낙향 사부(落鄕士夫)라.
-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2~46)

(가)

前 腔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저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過 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기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적자 미상, '정음사(井畧詞)'

(나)

德(덕)이란 곰빅에 받좁고, 福(복)이란 립빅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닐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正月(정월)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호올로 널서.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人(들)를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흔 아으 滿春(만춘) ㉢들윗고지여.  
 늑뎨 브롤 즈슬 디더 나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 시 문학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오 오실서 ㉠꽃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문 넷 나를 닛고신더.  
 아오 動動다리.

五月(오월) 五日(오일)애, 아오 수릿날 아츰 藥(약)은  
 즘른 힐 長存(장존) 訶살 藥이라 받줍노이다.  
 아오 動動다리.

六月(유월) ㅅ 보로메 아오 별해 비룬 ㉠뵈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니노이다.  
 아오 動動다리.

七月(칠월) ㅅ 보로메 아오 百種(백종) 排(배) 訶야 두고,  
 니를 혼 디 녀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  
 아오 動動다리.

八月(팔월) ㅅ 보로몬 아오 嘉排(가배) 나라마른,  
 니를 피셔 녀곤\* 오늘날 嘉排(가배) 샷다.  
 아오 動動다리.

九月(구월) 九日(구일)애 아오 藥이라 먹는 黃花(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서 가만訶야라.  
 아오 動動다리.

十月(시월)애 아오 저미연 ㉠보룻 다호라.  
 것거 비리신 後(후)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아오 動動다리.

十一月(십일월) ㅅ 봉당 자리에 아오 汗衫(한삼) 두피 누워  
 슬흠스리온더 고우닐 스스름 녀셔.  
 아오 動動다리.

十二月(십이월) ㅅ 분다남궤로 갓곤 아오 니슬 盤(반)잇 저 다호라.  
 니의 알찌 드려 얼이노니 소니 가채다 므르습노이다.  
 아오 動動다리.

-작자 미상, '동동(動動)'

## (다)

귀쪼리 저 귀쪼리 어엿부터 저 귀쪼리  
 어인 귀쪼리 지는 들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節節(절절)이  
 슬픈소리 제 혼자 우리 네어 紗窓(사창) 여원 줌을 슬쓰리도 썩오는  
 고야.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  
 리는 너뿐인가 訶노라.

-작자 미상, '사설시조'

\*경그물세라 : 저물까 두렵다      \*피셔 녀곤 : 모시어 지내야만

## 42. (가)~(다)의 화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 ① 절대자에 의지하여 슬픔을 극복하고자 한다.
- ② 현실 생활의 고통을 자연에서 풀어내고 있다.
- ③ 떠난 임에 대해 원망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삶의 외로움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 43.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소원을 비는 대상이다.
- ② ㉡ → 남편의 귀갓길을 비추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③ ㉢ → 남편이 있는 곳을 알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④ ㉣ → 남편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남편의 귀갓길에 대해 화자가 노심초사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③

## 44. (나)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d, e

①

## 45. <보기>는 (나)의 전송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 )에 적절한 것은?

### 보기

이 노래는 시상이 일관된 흐름을 보여 주지 않을뿐더러, 각 연마다 나타나는 주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한 작가의 일관된 정서의 표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사와 2, 3, 5월령은 임에 대한 순수한 송도(頌禱)이다. 이 때의 '임'은 임금이거나 임금처럼 높이 추앙된 공적인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1, 4월령은 개인적 정서, 즉 구체적인 '나의 고통'이며, '나의 임'에 대한 원망적(怨望的) 호소이다. 6, 7, 8월령은 공적 정서와 개인적 정서의 애한(哀恨)이 함께 융합된 중간적 정감의 노래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 ) .

- ① 산문 형식의 노래가 운문 형식으로 변형되면서 생겨났을 것이다.
- ②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지방 양반들에 의해 향유되고 전송되었을 것이다.
- ③ 기층 민중이 지배 계층과 충돌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잉태된 노래일 것이다.
- ④ 개인적 서정 가요가 집단적 노동 가요로 전이되는 과도기 형태의 노래일 것이다.
- ⑤ 연가풍 민요가 궁중으로 흘러 들어가 궁중 음악으로 쓰이면서 변형되었을 것이다.

⑤

# 시 문학

## 46. (다)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꿈에 보이는 입은 신의가 없다고 하지마는  
 못 견디게 그리울 때에 꿈이 아니면 어찌 만나 비리,  
 저 입아 꿈이라 꺼리지 말고 꿈마다 자주자주 뵈게 해 주소서.

-명옥의 시조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이군, 입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이 많이 뒹겼군.
- ② 남가일몽(南柯一夢)이야. 빨리 잊고 생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을거야.
- ③ 천석고황(泉石膏肱)이라고 했는데, 자연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좋겠군.
- ④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했어. 상대방도 보고 싶은 마음이 깊을 거야.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 했어. 남자들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법이지.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7~51)

### (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뵈 아무리 일러도 입이 헤여 보소서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느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지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아버지 그럴 줄을 처음부터 알아미는  
 남군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서니  
 ㉦진실로 남군을 잊으면 그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

-윤선도, '견회요'

### (나)

오색실 이음 짧아 님의 웃을 못하여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 추호나 갚으리라  
 백옥같은 이내 마음 님 위하여 지키고 있었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치니  
 일모수죽\*에 푸른 옷 소매도 냉박하구나  
 ㉨난꽃을 꺾어 쥐고 님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弱水) 가로놓인 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다 썩은 닭의 얼굴 첫 맛도 채 몰라서  
 ㉩초취한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리 되었구나  
 험한 물결 한가운데 백 척간에 올랐더니  
 끝이 없는 회오리 바람이 환해\*중에 내리나니  
 ㉪역만장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

(중략)

㉫양춘(陽春)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 넓은 가에 냇조차 흩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태상 일곱 분이 신선의 명이시니  
 천상 남루에 생황과 피리를 울리시며  
 지하 북풍의 사명(死命)을 벗기실까  
 죽기도 명ियो 살기도 하늘이니  
 진채지역\*을 성인도 못 면하며  
 ㉬누설비죄(纒纒非罪)\*라도 군자인들 어이하리  
 오월 서리가 눈물로 어리는 듯  
 삼 년 큰 기쁨도 원기로 되었도다  
 죄지은 사람이 고금에 한돌이며  
 늙은 신하의 서러운 일도 하고 많다  
 건군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취는 듯  
 고정의국\*에 원망스럽고 분한 마음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지내고저  
 창창막막하야 못 믿을 쓴 조화로다

-조위, '민분가'

### (다)

천 리라 먼 고향 만 겹 봉우리	千里家山萬疊峯
꿈에도 안 잊히는 가고픈 마음	歸心長在夢魂中
한송정 위아래엔 두 바퀴의 달	寒松亭畔孤輪月
경포대 앞을 부는 한 떼의 바람	鏡浦臺前一陣風
모래톱 ㉮갈매기는 피락 홀으랴	沙上白鷺恒聚山
물결 위 고깃배는 동으로 서로	波頭漁艇各西東
언제나 다시 강릉 길 밟아	何時重踏臨瀛路
색동옷 입고 어머니 슬하에서 바느질할고	更着斑衣膝下縫

-신사임당, '사친(思親)'

- \*추성(秋城) : 함경북도 경원의 별칭
- \*한해 : 관리의 사죄
- \*일모수죽 : 해 질녘 긴 대나무에 의지하여 서 있음
- \*진채지역 : 공자가 진과 채나라에서 당한 횡역
- \*누설비죄 : 죄 없이 잡혀 있다는 뜻
- \*고정의국 : 유배지에서 나라만 생각하는 충정

## 4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 ② (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다)는 고된 시집살이와 대조된 행복한 어린 시절이 잘 나타나 있다.
- ④ (나)와 (다)는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의 화자는 현실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 시 문학

### 48. <보기>는 '유배 문학'에 대한 내용을 (가)와 (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 ▶ '유배 문학(流配文學)'에 대해
- 정의 :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살이를 하게 된 상층부의 양반들에 의해 쓰여진 문학으로 (가)와 (나)는 당쟁으로 인해 유배지에 있는 경우이다.
- 계보 : 조위→정철→김춘택→이진유→안조원
- 특징

- ① 함께 하고 싶은 대상과의 거리감을 표출 ————— ㉠, ㉡
- ② 현실 상황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남 ————— ㉠, ㉢
- ③ 당쟁의 피해자로서 갖는 억울한 감정의 표출 ————— ㉡, ㉣
- ④ 군사부일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 내재 ————— ㉢, ㉣
- ⑤ 온갖 고초와 고독감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함 — ㉢, ㉣

④

### 49. (가)~(다)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작품에 나타난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 ① (가)의 화자 : 멀리 유배지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임금과 부모님이 몹시 그럽군요.
- ② (나)의 화자 : 공감이 가네요. 특히 저는 임금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군요. 어떻게라도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군요.
- ③ (다)의 화자 : 결혼한 여자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남다르지요. 시간이 흘러도 결혼 전 지냈던 고향에 대한 추억은 선명하군요.
- ④ (가)의 화자 : 저는 지금 상황이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지금의 제 생활에 대해 한탄하거나 뉘우칠 생각은 없어요.
- ⑤ (나)의 화자 : 저는 저의 잘못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더욱 애달프군요. 하루라도 빨리 만나 제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요.

⑤

### 50. <보기>를 고려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중국의 24효자 중 하나로 불리는 초나라의 현인(賢人) 노래자(老來子)는 칠십에 어린애 옷을 입고, 어린애 같은 장난을 하여 부모를 즐겁게 하였다.

- ① 화자는 어렸을 때 입을 옷을 입고 어머니와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하군!
- ② 화자가 색동옷을 입고 바느질하겠다는 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군!
- ③ 화자는 바느질을 통해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의 삶의 외로움을 드러내고자 했군!
- ④ 화자는 색동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과시하겠다는 것이군!
- ⑤ 화자는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최상의 효도임을 강조하고 있군!

②

### 51.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대상과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감정을 저도 모르게 다시 그 대상과 인간에게 옮겨 놓고 마치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이 느끼는 것을 감정 이입이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2~56)

**(가)**

북창(北窓)이 뭍다커늘 우장(雨裝)업시 길을 나니  
산(山)의는 눈니 오고 들에는 춘비로다  
오늘은 춘비 맞았시니 얼어갈 까 흐노라.

-임제, '한우가'

**(나)**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 마르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포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여히르른 아즐가 여히르른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즈므히를 아즐가 즼므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A] 널빅에 아즐가 널빅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포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시 문학

(다)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 남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 해

행주 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울 너머 총각의 각피리 소리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구리 백통\*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작자 미상, '밀양 아리랑'

\*백통 : 구리, 아연, 니켈의 합금, 은백색으로 화폐나 장식품 따위에 씀

## 52. (가), (나)와 구별되는 (다)만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입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려 하고 있다.
  - ② 남녀 사이의 사랑을 소재로 부정적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③ 단순한 유희적 정서를 넘어서서 애절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
  - ④ 사랑의 성취보다는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보다는 시적 대상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 사랑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53. <보기>는 (가)에 대한 답가이다. 이 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이 얼어 잘어 뜨스 얼어 잘어

원앙침(鴛鴦枕) 비취금(翡翠衾)은 어디 두고 얼어 잘어

오늘은 춘비 맞자신이 녹아잘 까 흐노라.

-한우의 시조

- ① 중의적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 ② '춘비 맞자신'은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다.
  - ③ 화자의 정서를 묘사된 자연물에 직접 이입해 드러내고 있다.
  - ④ '얼다'와 '녹다'는 문맥적으로 두 화자의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다.
  - ⑤ 묻고 답하는 형식에서 두 사람의 은근한 사랑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
- ③

## 54. <보기>의 특성과 관련지어, (나)와 (다)의 공통점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구비 문학(口碑文學)은 우리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이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회에서 생성·전승된 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비 문학은 말로 생성되고, 말로 재연되며, 말로 전한다. 따라서 같은 언어권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해지고, 그러는 사이에 내용이 약간씩 변하기도 한다. 구비 문학은 특정 작가의 문학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학이다. 처음에는 개인의 창작에 의해 출발한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나, 전승 과정에서 작자와 청중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전승자라면 누구든지 내용에 어느 정도의 손질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동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비 문학에는 전승 집단의 사상이나 감정, 그리고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① 화자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구비 문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 ② 상징성이 강한 시어의 사용으로 구비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 ④ 보편적 심상이나 상투적 비유가 집단의 공동 창작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후렴구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전승 집단의 보편적인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①

## 55. ㉠에 담긴 화자의 정서를 추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고통스러운 처지임을 서러워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사랑을 잃은 상황임을 깨닫고 슬퍼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존재를 잘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처지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임을 자랑하고 있다.
  - ⑤ 자신의 마음이 일년 내내 변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56.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표출 방식과 유사한 것은?

- ①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요기궤지 알피오라 / 뉘온님 오며는 쓰리를 해 해치며 쉬락 누리쉬락 반겨서 내뉘고 고온님 오며는 뒷발을 베통베통 모르락 나으라 강강즈져서 도라가게한다 / 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 ② 어이 못 오던가 무슴 일노 못 오던가 / 너 오는 길에 무쇠 성(城)을 쓰고 성 안에 담 쓰고 담 안에 짐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궤(櫃)를 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너코 쌍배목(雙排目)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슈괴슈괴 잠가 있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느냐 / 흐 해도 열두 들이오 흐 들 설흔 날의 날 와 볼 흘니 업스라
  - ③ 닉그려 썸을싼가 닉이그려 썸의빙가 / 예엿분 얼골이 번드스 뵈노미라 / 썸이야 썸이엿마는 자로자로 뵈와라
  - ④ 너부나 넓은 들희 흐르니 물이로다 / 인생이 저러토다 어드러로 가는 게 오 / 아마도 도라울 길히 업스니 그를 슬허 흐노라
  - ⑤ 귀소리 저 귀소리 어엿부다 저 귀소리 / 어인 귀소리 지는 들 새는 밤 의 긴 소리 자른 소리 筋筋(절절)이 슬픈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紗窓(사창) 여원 줌을 슬쓰리도 적오노고야 /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리는 너넨인가 흐노라.
- ①

# 시 문학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7~61)

**(가)**

군(君)은 아버지  
 신(臣)은 드스랄 어시여.  
 민(民)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민(民)이 드술 알고다  
 구물사다히 살손 물생(物生)  
 이홀 머기 다스라  
 ㉠이 짜홀 브리곡 어디 갈더 홀디  
 나라악디나디 알고다.  
 아으,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흐늘든  
 나라악 태평(太平)하니었다.

-총담사, '안민가'

**(나)**

千世(천세) 우회 미리 定(정) 恒산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루이)  
 (누인개국) 恒사 卜年(복년)이 罔(없)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사도 敬  
 天勤民(경천근민) 恒사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謹(금)하 아루쇼서 落水(낙수)  
 에 山行(산행) 가 이서 하나빌 미드니잇가.

-정인지 등, '용비어천가' 125장

**(다)**

天雲臺(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재 瀟灑(소쇄) 흐디  
 萬卷生涯(만권생애)로 樂事(낙사) | 無窮(무궁) 恒애라.  
 이 등에 往來 風流(왕래풍류)를 날어 므스 홀고.  
  
 雷霆(뇌정)이 破山(파산) 恒여도 耨者(농자)는 못 듯느니  
 白日(백일)일 中天(중천) 恒야도 耨者(고자)는 못 보느니  
 우리는 耳目(이목) 聰明(총명) 男子(남자)로 耨耨(농고) 굶디 마로리.  
  
 古人(고인)도 날 몯 보고 나도 古人(고인) 몯 뵈.  
 古人(고인)을 몯 뵈도 녀던 길 알쩍 잇기,  
 녀던 길 알쩍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현실  
 當時(당시)에 녀던 길홀 몇 畝(호)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둔디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녀던 畝(호)를 마로리.

靑山(청산)는 엇데 恒야 萬古(만고)에 프르르며,  
 流水(유수)는 엇데 恒야 晝夜(주야)에 굶디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 상청)호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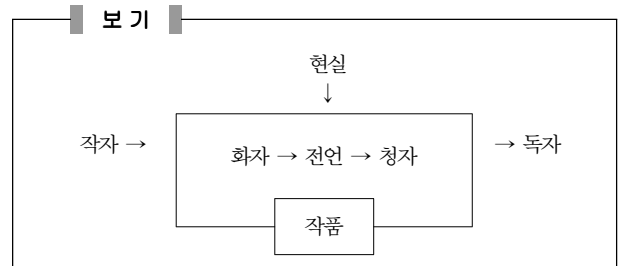
愚夫(우부)도 알며 흐거니 그 아니 쉬운가?  
 聖人(성인)도 못다 흐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주를 몰래라.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나라악 : 나라 안                      \*罔스시니 : 가가 없으시니, 끝 없으시니

**57.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감각적 심상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운율의 규칙적인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 ③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성적 사고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 ④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정서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상징적인 시어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시어의 중의적 효과를 살리고 있다.
- ③

**58.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의 창작 의도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가), (나), (다) 모두 화자의 자아 성찰이 중심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
  - ② (가), (나), (다) 모두 현실을 살아가는 독자의 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독자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 ④ (나), (다)는 (가)에 비해 청자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강하다.
  - ⑤ (가)는 현실 문제 해결을, (나)는 화자의 자아 성찰을, (다)는 독자의 태도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
- ②

**59. ㉠의 문맥적 의미가 살도록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

- 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생각이 드는군.
  - ② 누울 자리 봐 가며 밭 뺨으랬다고 항상 깊게 생각해야겠군.
  - ③ 유비 무환이라는 말처럼 미리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해야겠군.
  -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속담이 썩 잘 어울리는군.
  - 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군.
- ①

**60. (나)에 사용된 의사 소통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상황에 빗댄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길으로 모순인 표현을 사용하여 함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이 지닌 속성이나 부분을 이용하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비적 상황을 바탕으로 반문하여 전달하려는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인 자연물에 이입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 시 문학

## 61.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이곡(二曲)은 어드메고 화암(花巖)에 춘만(春晩)커다.  
 벽파(碧波)에 곱출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살림이 승지(勝地)를 몰온이 알게 혼들 엇더리.

-이이, '고산구곡가' 중 셋째 수

- ① <보기>의 '살림'을 (다)의 화자로 볼 수 있다.
- ② <보기>의 '승지'는 (다)의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다.
- ③ <보기>의 종장에서 (다)의 창작 의도를 추리할 수 있다.
- ④ <보기>와 달리, (다)의 화자는 스스로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 ⑤ <보기>와 달리, (다)에서는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이입하지 않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62-66)

#### (가)

보미 옛는 萬里(만리)옛 나그네는	春來萬里客
亂(난)이긔겨든 어느 희에 도라가려뇨.	亂定幾年歸
江城(강성)에 그려기 애클 곳노라.	腸斷江城鴛
노피 正(정)히 北(북)으로 나라가매	高高正北飛

-두보, '귀인(歸雁)'

#### (나)

하 오월 초칠일의 / 도강 날즈 경혀여네. / 방물을 경검히고  
 횡장을 슈습혀여 / 압녹강변 다다르니 / 송객정이 여기로다.  
 의주 부운 나와 안고 / 다담상을 츠려 노코, / 삼 사신을 전별홀시  
 처장기도 그지없다. / 일비 일비 부일비는 / 서로 안져 권고하고,  
 상스별곡 흥 곡조를 / 참아 듯기 어려워라. / 장계를 봉흔 후의  
 썰터리고 이어나서, / 거국지회 그음업서 / 억제하기 어려운 중  
 홍상의 쫓눈몰이 / 심회를 돕는다. / 녹인교를 물너 노니  
 장독교를 등디하고, / 전비 토인 흐직하니 / 일산 좌견췌만 있고,  
 공형 급창 물너서니 / 마두 셔즈췌이로다. / 일엽 소선 비을 저어  
 점점 멀이 췌서 가니, / 푸른 봉은 첩첩혀여 / 날을 보고 즐기는 듯,  
 빅운은 요요하고 / 광식이 참담하다. / 비치 못홀 이너 마음  
 오날이 무슴 날고. / 출세흔 지 이십오 년 / 시호의 즈라나서  
 평일의 이츄혀여 / 오리 췌나 본 일 엷다. / 반 년이나 엷지홀고,  
 이위정이 어려워며, / 경기 지경 빅 니 밧기/먼 길 단여 본 일 엷다.  
 허박하고 약흔 기질 / 말 이 형역 격정일세. / 흥 즐기 압녹강의  
 양국지정 난화스니, / 도라보고 도라보니 / 우리 나라 다시 보즈.

-홍순학, '연행가(燕行歌)'

#### (다)

더외난 홍로(紅爐)갓고 장마난 극악(極惡)한대  
 노자난 되서우고 이 명월(明月) 내달나서  
 다락원 잠관지나 축성영 남어서니  
 북천이 머러간다  
 슬푸다 이내몸이 영주각 신선(神仙)으로  
 나나리 책을 끼고 천일(天日)을 메시다가  
 일조(一朝)에 정을 떼여 천애(天涯)로 가갓고나  
 규중을 침망(瞻望)하니 운연(雲煙)이 아득하다  
 [A] 중남은 이아하여 몽상(夢想)에 마련하다  
 밥먹으면 길을 가고 잠을 깨면 길을 떠나  
 물건너고 재를넘어 십리가고 백리가니  
 양주(楊洲)따 지난후에 표원을 길가이오  
 천원지경 발분후에 정평읍 건너가서  
 김회김성 지난후에 화양읍 막죽이라  
 강원도 북관길이 듯기보기 갓호구나  
 회양서 중화하고 철령을 향해가니  
 천험한 청산이오 축도란은 길이로다

#### (중략)

고참(古站) 역마 잡아 타고 배소(配所)로 들어가니  
 인민은 번성하고 성곽(城廓)은 웅장(雄壯)하다  
 여각(旅閣)에 들어 앉아 패문(牌文)을 부친 후에  
 맹 동원의 집을 물어 본관 더러 전하니  
 본관 전갈(傳囑)하고 공형(工刑)이 나오면서  
 병풍 자리 주물상을 주인으로 대령하고  
 육각(六角) 소리 앞세우고 주인으로 나와 앉아  
 처소에 전갈하며 되서 오라 전갈하네  
 슬프다 내 일이야 꿈에나 들었던가  
 이 곳이 어디메나 주인의 집 찾아가니  
 높은 대문 넓은 사랑 삼천석군 집이로다  
 본관과 초면이라 새로 인사 대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 교리(金校理) 이 번 정배(定配)  
 죄 없이 오는 줄은 북관(北關) 수령(守令) 아는 배요  
 만이 울었나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사이다 삼형(三營) 기생 다 불러다  
 오늘부터 노자꾸나 호반\*의 규모란가  
 활협(闊俠)도 장하도다 그러나 내 일신이  
 귀적(歸謫)한 사람이라 화광빈객(華光賓客) 꽃자리에  
 기악(伎樂)이 무엇이나

-김진형, '북천가(北遷歌)'

\*호반 : 무사(武士)

# 시 문학

### 62. <보기>에서 (가)~(다)의 공통점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 ㄴ. 집 떠난 후의 객수(客愁)가 나타나 있다.
- ㄷ. 규칙적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ㄹ. 오랜 이국(異國) 생활의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
- ㅁ.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ㅁ ⑤ ㄱ, ㄷ, ㄹ  
③

### 63. (나), (다)에 나타난 '잔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두 기생(妓生)이 함께 참여한 잔치로군.
  - ② 그런데 잔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아.
  - ③ (나)의 잔치가 일행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다)는 개인을 위한 것이구나.
  - ④ 그렇다면 (나)의 잔치는 공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다)는 사적인 성격이 강하겠구나.
  - ⑤ 그래서 (나)에 비해 (다)의 잔치 규모는 빈약한 것이구나.
- ⑤

### 64. (가)를 <보기>와 같이 고쳐 쓴다고 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미 옛는 萬里(만리)옛 나그네는  
어느 히에 亂(난)이긌 곳쳐 도라기려뇨  
江城(강성)에 그려기  
노피 正(정)히 北(북)으로 느라가매 애틀 곳노라.

- ① 규칙적 리듬을 살리기 위해
  - ② 원작(原作)의 자구(字句)에 충실하기 위해
  - ③ 구체적 현상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 ④ 문법의 틀을 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 ⑤ 우리말의 어순을 고려해 시적 진술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 ⑤

### 65. (다)의 [A]와 <보기>의 시상 전개상의 공통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보기**

江江湖호에 病병이 겁과 竹竹林림의 누엇더니,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니에 方방향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은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延延秋秋추문문 드리드라 慶慶會會회 南남門門문 브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玉節절이 알떡 섰다.  
平평丘丘驛驛역 물을 그라 黑黑水水수로 도라드니,  
蟾蜍蟾蜍江江강은 어디메오, 雉雉邑邑악이 여기로다.  
昭昭陽陽양江江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孤고豆豆신 去去거國國국에 白白髮髮발도 하도 할샤.

-정철, '관동별곡'

- ① 공간의 이동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였다.
  - ② 여정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 ③ 나라를 떠나는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④ 우국(憂國)의 심정을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였다.
  - ⑤ 정경 묘사와 그에 따른 정서를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 ①

### 66.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배 전의 작가의 신분이 드러나 있다.
  - ② 귀양살이의 고통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③ 유배지로 가는 도중의 환대가 잘 드러나 있다.
  - ④ 자신의 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 ⑤ 자신의 상황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작가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7~71)

**(가)**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역(思憶)하고\*, 어리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轅氏)를 애드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빅 아니면 풍파 만리(風波萬里) 맞기, 어너 사이(四夷)\* 엇볼넌고 무슴 일 흐려 하야 빅 못기를 바릇호고? 만세천추(萬世千秋)에 그업슨 큰 폐(弊) 되야, 보 천지하(普天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나다.

어즈버 섰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빅 비록 잇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뵈 빅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디도록 드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통분(痛憤)호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맛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미나 어더 너여, 만리 장성(萬里長城) 놓히 사고 몇 만년(萬年)을 사도편고? 늑티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호 줄 모르로다.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徐市) 등(等)이 이심(已甚)하다.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호는 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舟師)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라,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호로소냐? 속절업슨 시비

# 시 문학

(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장한(張翰) 강동(江東)에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해월(天淸海闊)하다. 어니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밧골 제일강산(第一江山)에, 부평(浮萍) 닷흔 어부생애(漁父生涯)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 부쳐 든힐는고?

일언 날 보건된, 비 삼긴 제도(制度)야 지묘(至妙)흔 덧하다마는, 엇디흔 우리 물은 누는 듯흔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밧기 타고, ㉠임풍영월(臨風映月)호되 흥(興)이 전혀 업는게오? 석일(昔日) 주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장창(大劍長鎗)뿐이로다. 흥 가지 비언마는 가진 비 다라니,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ㄹ지 못하도다.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진(北辰)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의 디어는다.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디라마는,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하야 해추(海醜) 흉모(兇謀)에 만고수(萬古羞)를 안고 이서, 백분(百分)에 흥 가지도 못 시서 버려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흔들 신자(臣子) | 되야 이셔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퇴읍고 늘거신들,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니 각(刻)에 이즐는고?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병중(病中)에 드러시니, 설분 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종달(生仲達)을 멀리 좃고, 발 업슨 손빈(孫賓)도 방언(龐涓)을 잡아거든, 흥몰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ㄹ자 잇고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서절 구투(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흥소냐? 비선(飛船)에 둘러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에 낙엽(落葉)가지 헤치리라. 칠종칠금(七縱七禽)을 우린들 못 흥 것가?

㉡준피도이(蠡彼島夷)들이 수이 걸항(乞降) 하야스라. 향자 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구터 섬멸(殲滅)하라? 오왕(王) 성덕(聖德)이 욱병생(欲並生) 하시니라. 태평 천하(太平天下)에 요순(堯舜) 군민(君民) 되야 이서, ㉢일월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 하얏거든, 전선(戰船) 트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晚) 하고 추월춘풍(秋月春風)에 넘히 베고 누어 이서, 성대(聖代) 해불 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하노라.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나)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성은 텅 빈 채로 ㉣달 한 조각 떠 있고	城空月一片
오래된 초천석 위에 천년의 구름 흐르네.	石老雲千秋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데	麟馬去不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들다리에 기대어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倚風磴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이색, '부벽루'

\*사역(思憶) 호고 : 생각하고  
 \*사이(四夷) : 사방의 오랑캐. 곧. '동이, 서유, 남만, 북적'  
 \*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 : 황제(현원씨)가 배와 수레를 만들  
 \*천손 : 고구려 동명왕

67.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일상적 체험을 유사한 경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고 있다.
- ⑤ 대립적인 시어를 병치하여 시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68. ㉠~㉢에 나타난 '달(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임금의 은혜를 상징한다.
- ② ㉡는 해(日)와 대조적 심상이다.
- ③ ㉢는 화자에게 무상감을 불러일으킨다.
- ④ ㉠, ㉡는 화자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킨다.
- ⑤ ㉡, ㉢는 화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대상이다.

69. 위 글에서 ㉣에 대해 화자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저급하느라 당장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 ② 내가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 ③ 자동차를 사면서 삶의 여유를 찾았지만 철따라 변하는 자연에 눈 주지 못하고 지내는 때가 많다.
- ④ 컴퓨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진 느낌이다. 그래도 그게 없었으면 게임의 즐거움을 어찌 누릴 수 있오랴.
- ⑤ 비행기 사고로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 인간의 발명은 불행의 시작이다. 차라리 출장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70. 표현 의도와 태도로 볼 때 ㉣과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여기서 과동(過冬)하면서 농사 지어 먹고 천천히 행복 받고 떠나 가려니와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려고 하느냐? 속히 행복하라.  
-작자 미상, '임경업전'
- ② 무지한 오랑캐놈야. 무슨 연고로 아국 인물을 거두어 가려 하느냐. 만일 왕비를 피서 갈 뜻을 두면 너희 등을 함몰할 것이니 신명을 돌아보라.  
-작자 미상, '박씨전'
- ③ 폐하께서는 지난날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옵더니 어찌 모 반하여 많은 생명을 피바다로 물들이고 누대의 충신을 귀양 보내고 죽 이시니 종묘사직이 어찌 위태롭지 않으시리이까.  
-작자 미상, '유충렬전'
- ④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가 천명을 받아 기병(起兵)하매, 먼저 철봉을 파하고 물밀 듯 들어가니 왕은 싸우고저 하거든 싸우고, 불연측(不然割) 일찍 행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허균, '홍길동전'
- ⑤ 간사한 왜왕은 종시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죽이려 하거니와 내 어찌 간계에 빠지리요. 이제 왜국을 함몰하려 하니 만일 잔명을 보 전하려거든 급히 항서(降書)를 올리면 비를 그치게 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일본은 동해(東海)를 만들리라.  
-작자 미상, '임진록'

71. (나)의 ㉣과 유사한 정서가 느껴지는 것을 (가)에서 찾을 때 가장



# 시 문학

### 적절한 것은?

- ① 보천치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나다.
- ② 늪딛로 죽어가니 유익(有益)한 줄 모르로다.
- ③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허난 것가.
- ④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 ⑤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大劍) 장창(長鎗) 쏘이로다.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2~76)

### (가)

내 형상(形狀) 가련(可憐)하다 그려내어 보내과져  
 오색(五色) 단청(丹青) 잔케 매어 그리운 데 보내고져  
 이 정의(情誼) 깊은 정(情)을 만(萬)에 하나 옮기시면  
 오늘날 이 고생(苦生)은 몽중사(夢中事) 되련마는  
 기러기 지난 후(後)에 척서(尺書)도 못 전(傳)하니  
 초수(楚水)오산(吳山) 천만(千萬)첩(疊)에 내 그림을 닮 전(傳)하리  
 사랑롭다 이 별이야 얼었던 몸 녹는고나  
 백년(百年)골 쫓아온들 싫다야 하라마는  
 어이한 조각구름 이따금 그늘지니  
 찬바람 지나칠 제 별을 가려 아쳐롭다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찌 셀고  
 이 밤을 지내온 후(後) 오는 밤을 어찌하리  
 잠이라 없거들랑 밤이나 짜르거나  
 하고 한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  
 그리운 이 생각하고 살뜰히 애석(哀惜)일 제  
 목숨이 부지(扶支)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  
 인간(人間) 만물(萬物) 생긴 중에 날날이 헤어 보니  
 모질고 단단한 이 날 밖에 또 있는가  
 심산(深山) 중(中) 백악호(白岳虎)가 모질기 날 같으며  
 독 깨치는 철(鐵)몽둥이 단단하기 날 같으랴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꺾을 뚫어  
 고모 창자(窓子) 세 살 창자(窓子) 완자창(窓)을 갖초 내어  
 이같이 답답할 제 여단하나 보고지고  
 어와 어찌하리 험마한들 어찌하리  
 세상(世上)귀향 나뉘이며 인간(人間) 이별(離別) 나 혼자라  
 소무(蘇武)의 북해(北海) 고생(苦生)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苦生)을 귀불귀(歸不歸) 험마하랴  
 무삼 일에 마음 붙여 이 설움을 잊자하리

-안조환, '만언사(萬言詞)

### (나)

鐵嶺(철령) 노끈 峰(봉)을 쉬어 넘는 저 구름아.  
 ㉢孤臣冤淚(고신 원루)를 비 사마 썩여다가,  
 님 계신 九重深處(구중 심처)에 뿌려 본들 엇드리.

-이항복의 시조

### (다)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자  
 구만리(九萬里) 장천(長天)에 번듯이 걸려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정철의 시조

### 72. (가)~(다)의 공통점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입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입에 대한 자신의 변함 없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③ 화자는 작중에서 입과 이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 ④ 자연물을 이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낯선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73. (가)와 비교할 때 <보기>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북풍(北風)의 혼자 서서 7업시 우는 뜻을  
 하늘 7튼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슬피시니  
 목란추국(木蘭秋菊)에 향기(香氣)로운 타시런가  
 첩여 소군(媵孤君)이 박명(薄明)한 몸 이런가  
 군은(君恩)이 물이 되어 흘러 가도 차최 업고  
 옥안(玉顏)이 꽃 이로되 눈물 7려 못 볼로다  
 이 몸이 녹아 저도 옥황상제(玉皇上帝) 처분(處分)이요  
 이 몸이 식여 저도 옥황상제(玉皇上帝) 처분(處分)이라  
 노가 디고 식여 지어 혼백(魂魄)조차 훗터 지고  
 공산축루(空山觸露) 7치 님자 업시 구니 디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第一峯)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서  
 바람 비 썩린 소리 님의 귀에 들니기나  
 운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一萬二千峯)의 묵음곳 소사 올라  
 7을들 불근 밤의 두어 소리 슬피 우리  
 님의 귀의 들리기도 옥황상제(玉皇上帝) 처분(處分)일다

-조위, '만분가'

- ①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의 비극적인 상황과 운명에 대한 한탄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품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입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입에 대한 심정보다는 화자의 비참한 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 7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시 문학

## 보기

광해군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선조의 적자인 어린 영창 대군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었다. 작자는 이에 반대하여, 함경도 북청으로 귀양 가는 도중에 철령고개를 넘으면서 이 시조를 읊었다. 이것이 서울 까지 퍼져 궁중에서도 불렸는데 광해군이 나중에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 ① ‘구름’에는 귀양길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군.
- ② ‘구중심처(九重深處)’에 있는 ‘암’은 바로 ‘광해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 ③ 귀양을 가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고신원루(孤臣冤淚)’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군.
- ④ ‘철령의 높은 봉’은 자신을 모함했던 간신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군.
- ⑤ ‘비’에는 자연물을 동원해서라도 임금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들어있군.

④

## 75. <보기>의 조건에 맞추어 창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다)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한다.
2. 감각적 이미지를 대비시켜 작품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3. (다)에서 사용한 화자의 정서 전달 방식을 그대로 살린다.

- ① 당신은 비가 되어 나를 축축이 적시고, 나는 눈이 되어 그대를 하얗게 덮는다.
- ② 당신이 배가 되어 검은 바다로 나가면, 나는 하얀 등대가 되어 당신을 밝히리.
- ③ 그리움과 외로움을 붉은 실로 엮어서 당신에게 보내리, 나의 텅 빈 마음을.
- ④ 당신은 새가 되어 말없이 날아가 버리고 나는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 내 맡겨졌지요.
- ⑤ 말없이 서있는 바위가 되어 당신을 그리고, 끝없이 흐르는 강물이 되어 당신에게 가리라.

②

## 7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간적 배경을 이용하여 애절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화자의 원통한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자유로운 발상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7~81)

## (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훨 펴고, 펼펼펼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만나면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岩)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岩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쫄쫄,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난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 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奏穀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 낙조(日出落照)가 눈 앞에 벌여나 경계 무궁(景概無窮) 좋을씨고.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 (나)

㉠구버는 千尋綠水(천십 **녹수**) 도라보니 萬疊青山(만첩 **청산**) 十丈紅塵(십장홍진)이 언매나 **맷헛**고, 江湖(강호)에 月白(월백) 흐거든 더욱 無心(무심) **흐**애라.

-이현보, '어부가(漁父歌)'

## (다)

**소자**(蘇子)가 근심스레 옷깃을 바꾸고 곧추앉아 손님에게 물기를 “어찌 그러한가?” 하니, 손님이 말하기를 “달은 밝고 별은 성긴데, 까막까지가 남쪽으로 난다는 것은 조맹덕(曹孟德)의 시가 아닌가? 서쪽으로 하구(夏口)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武昌)을 바라보니 산천(山川)이 서로 얽혀 뻑뻑이 푸른데, 예는 맹덕이 주랑(周郎)에게 곤욕(困辱)을 받은 데가 아니던가? 바야흐로 형주(荊州)를 깨뜨리고 강릉(江陵)으로 내려갈 제, 흐름을 따라 동으로 감에 배는 천리에 이어지고 깃발은 하늘을 가렸어라. 술을 걸러 강물을 굽어보며 창을 비기고 시를 읊으니 진실로 일세(一世)의 영웅이러니,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나는 그대와 강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며 물고기와 새우를 짝하고 고라니와 시슴을 벗함애라. 한 잎의 좁은 배를 타고서 술을 들어 서로 권하며, 하루살이 삶을 천지에 부치니 아득한 넓은 바다의 한 알갱이 좁쌀알이로다. 우리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긴 강의 끝없음을 부럽게 여기노라. 날아다니 신선이 즐겁게 노닐며 밝은 달을 안고서 길게 끝내는 것은 갑자기 얻지 못할 줄 아는 것이니, 이 전하는 소리를 슬픈 바람에 부치노라.”

소자 말하기를, “손님도 저 물과 달을 아는가? 가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일찍이 가지 않았으며 차고 비는 것이 저와 같으나 마침내 줄고 늙어 없으니, 변하는 데서 보면 천지(天地)도 한 순간일 수밖에 없으며 변하지 않는 데서 보면 사물과 내가 다함이 없으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리오. 또, 천지 사이에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나의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 시 문학

간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에 뜨이면 빛을 이루어서, 가져도 금할 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조물주의 다함이 없는 갈무리로 나와 그대가 함께 누릴 바로다.”

손님이 기뻐하며 웃고,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드니 안주가 다하고 잔과 쟁반이 어지럽더라. 배 안에서 서로 팔을 베고 누워 동녘 하늘이 밝아 오는 줄도 몰랐어라.

-소동파, '적벽부'

### 7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풍요롭고 넉넉한 자연의 모습과 정취가 잘 드러나 있다.
  - ④ 자연을 배경으로 현실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 78.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자'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혼탁한 사회 현실로부터 벗어나 은둔적 삶을 살아가는 현자이다.
  - ② 타락한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지사이다.
  - ③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터득한 존재이다.
  - ④ 대상에 대해 고도로 세련된 심미적 안목을 가진 예술적 존재이다.
  - 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조화를 꿈꾸는 존재이다.
- ③

### 79. (나)의 ㉠과 발상 및 표현법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살다보면 곳은일도 하나하나 잊혀지네
  - ② 직진하면 경찰서요 후진하니 단속경찰
  - ③ 허위허위 일만하니 흐르나니 내땀이라
  - ④ 가도가도 끝이없는 중국땅은 정말넓네
  - ⑤ 너랑나랑 우리들이 알콩달콩 살아보세
- ②

### 80.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작품의 내적 의미에만 주목한 것은?

- ① 인수: 녹수, 청산, 월백 등의 시어에 나타난 색채가 주는 느낌은 무얼까?
  - ② 용준: 당시 작가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 왜 이런 태도를 가졌는지 궁금하거든.
  - ③ 지환: 작가가 처해 있었던 시간과 공간을 살펴보면 화자의 심리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 ④ 현수: 내가 작가의 처지라면 나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야. 얼마나 심리적 갈등이 심했겠어.
  - ⑤ 병희: 작가가 현실을 표현한 구절을 보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 한번 역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어.
- ①

### 81. <보기>는 (나)를 창작하게 된 동기를 말한 것이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연결되지 않는 시어는?

#### 보기

옛사람이 술 마시고 노래하는 중에 불렀음직한 시문 약간 수를 모아 비복에게 가르쳐 주고 시시로 들으면서 소일했다. 아이들이 근래 이 노래를 얻어 와 보여주기에 그것을 보니 노랫말이 한적(閑適)하고 뜻이 심원(深遠)하여 읊조리고 나면 사람으로 하여금 공명을 버리고 표표히 티끌 세계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뜻이 있었다. 이것을 얻은 뒤로는 그 전에 보고 즐기던 가사를 다 버리고 오직 여기에만 뜻을 두었는데, 손수 베껴 책으로 만든 후 꽃피는 아침과 달뜨는 저녁에 벗과 함께 술 마시며 분강의 작은 배 위에서 읊조리면 흥미가 더욱 진진하여 자못 권태를 잊어버리곤 했다.

-이현보, '어부가 밭(漁父歌跋)'

- ① 기산영수 ② 녹수 ③ 청산 ④ 심장홍진 ⑤ 강호
-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82~86)

#### (가)

㉠백골에까지 세금을 매기다니 어찌 그리도 참혹한가. 白骨之徵何慘毒  
한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모두 횡액을 당하였네. 同鄰一族橫罹厄  
아침 저녁 채찍으로 치며 엄하게 재촉하니, 鞭撻朝暮嚴科督  
앞마을에선 달이나 숨고 뒷마을에선 통곡하네. 前村走匿後村哭  
닭과 개를 다 팔아도 끈 돈을 갚기엔 모자란다네. 鷄狗賣盡償不足  
사나운 아전들은 돈 내놓으라 닦달하지만 세금 悍吏索錢錢何得  
별돈을 어디 가서 얻는단 말인가. 別財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사이에도 서로 보살피지 못하고, 父子兄弟不相保  
㉡가족과 뼈가 들러붙어 반쯤 죽은 채로 얼어붙은 皮骨半死就凍獄  
감옥에 갇혀 있다네.

-정내교, '농가탄(農家歎)'

#### (나)

온간 풀이 모두 다 뿌리 있으나  
부평초 홀로이 뿌리가 없어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신세  
언제나 바람에 불려다니네

살려는 의지가 없으리요만  
불인 목숨 진실로 작고 가늘어

연(蓮)잎이 너무도 업신여기고  
마름은 줄기로 칭칭 감아 조이네.

한 연못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도  
왜 이다지 몹시도 어긋나는가.

-정약용, '고시(古詩) 7'

# 시 문학

(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㉔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㉕쪽  
 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 간밤 아기에게 젓 물린 시간이고  
 그래 저 십 분은 /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집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㉖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회살을 당기고 있다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여성사 연구 5'

## 82. (가)~(다)에 드러난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람직한 미래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다.
- ② 주어진 삶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 ③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 ⑤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④

## 83. ㉔~㉖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가족에게 매긴 세금이 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㉕ : 한 가족이 당한 황색의 구체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 ③ ㉖ : 힘든 상황에서도 초탈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㉔ : 차에서 조는 삶이 사계절 내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㉖ : 가족의 안식이 여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③

## 84. (가)를 읽고 (보기)를 떠올렸다고 가정할 때, 그 연상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또가 어질어도 혈떡일 생활인데,  
 승냥이, 이리를 만났으니 가련하도다.  
 이고 진 유랑민 길마다 가득하니,  
 굶주림과 추위가 어찌 흉년 탓이리오.

-김시습, '영산가고(詠山家苦)'

- ①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다.
- ② 백성의 삶의 모습이 유사하다.
- ③ 대상이 처한 상황의 원인이 동질적이다.
- ④ 인간사를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설의적 의문으로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④

## 85. 밑줄 친 두 대상의 관계가 (나)의 '부평초 : 마름'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찰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땀는데, / 밭의 버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이제현, '사리화'

- ②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삼월 중순 세곡선(稅穀船)이 서울로 떠난다고.

-정약용, '탐진촌요'

- ③ 밭고랑에서 이삭 줍는 시골 아이의 말이  
 하루 종일 동서로 다녀도 바구니가 안 찬다네.  
 올해에는 벼 베는 사람들도 교묘해져서  
 이삭 하나 남기지 않고 관가 창고에 바쳤다네.

-이달, '습수요'

- ④ 들밭에 자갈이 너무나 많아 / 높고 낮은 곳 절반이 덩굴이라.  
 땅이 박해 잡풀이 많고 / 둔덕은 높아 벼가 자라지 못한다.  
 굶주린 까마귀 나무 끝에서 울고 / 여원 송아지 비탈에 누워 있다  
 비록 산이 깊은 곳이나 / 해마다 세금을 면할 수가 없어라.

-김시습, '산여'

- ⑤ 사방에 이웃이라고는 없고 / 닭과 개만 산기슭을 오르내린다.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고 / 나물을 뜯어도 얼마 되지 않네.  
 슬프다, 외진 산림 무엇이 좋아서 / 가파른 이 산중에 있는고?  
 저 쪽의 평지가 좋기야 하지만, / 월님이 무서워 갈 수가 없구나.

-김창협, '산민'

①

# 시 문학

## 86. ㉠의 의미를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하려 할 때, (A)와 (B)에 틀 어갈 적절한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 보기

행간 걸침이란 시인이 의도적으로 특정한 시어를 양 쪽 행에 모두 걸치게 함으로써 시어의 함축성을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가리킨다. (다)의 2연 2행의 '꼭' 역시 행간 걸침의 시어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중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꼭 부처님처럼
↓	↓
자연 현상과 관계없이 늘 그리고	꼭 부처님의
반드시 즐았다.	모습처럼 즐았다.
↓	↓
(A)	(B)

(A)

(B)

- |                 |                     |
|-----------------|---------------------|
| ① 자연에 무관심함      | 계절의 변화에 초연함         |
| ② 항상 많이 피곤함     | 깨지도 않고 즐고 있음        |
| ③ 잠이 많은 체질임     |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       |
| ④ 시간 활용을 잘 못함   |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    |
| ⑤ 차에서 조는 것이 습관임 | 가족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음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7~91)

#### (가)

어와 저 양반아 돌아왔어 내 말 들소.  
 어찌하여 짧은 손이 헤아림 없이 다니는가. 마누라 말씀을 아니 들어 보는가.  
 나는 이럴망정 외방(外方)의 늙은 종이 공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우리 댁 세간이야 예부터 이러하든가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리났는데  
 먹고 입는 드난종이 백여구(百餘口) 남았으니 무슨 일 하노라 텃밭을  
 묵혀 놓았는가.  
 농장이 없다 하든가 호미 연장 못 갖추었는가.  
 날마다 무엇 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 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아이들 탓이런가.  
 우리 댁 종의 버릇 보거든 괴이한데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  
 육(凌辱)하고 진지(進止)하는 어린 손이 한 양반을 기롱하는가  
 비뚤게 물건을 빼돌리고 비뚤로 제 일 하니 한 집의 수많은 일을 누가  
 힘써 할꼬  
 곡식고(穀食庫) 비었거든 고직(庫直)인들 어이 하며 세간이 흠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이 할꼬  
 내 틀린 줄 나는 몰라도 남 틀린 줄 모를 것인가  
 풀어헤치거나 맷히거나 헐뜨거나 뚝거나 하루 열 두 때 어수선 된 짓이고  
 바깥벌간 많이 있어 바깥 마름과 도달화(都達化)\*도 제 소임(所任) 다  
 버리고 몸 꺼릴 뿐이로다.  
 비 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 이으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쓸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화살 찬 수하상직(誰何上直) 누가  
 힘써 할꼬  
 크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앉아 명령을 누가 들으며 논의(論議)

누구와 할꼬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니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  
 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고

헤아림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 하려니와 도리어 헤아려 보니 마  
 누라 탓이로다.

내 항것 그르다 하기 종의 죄 많건마는 그렇다고 세상을 보기 민망하  
 여 사되나이다.

새끼 꼬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집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으시고 종들을 휘어잡으시려거든 상  
 벌(賞罰)을 밝히시고 상벌(賞罰)을 밝히시려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리 하시면 가도(家道) 절로 일어서리이다.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 (나)

아, 가도다, 가도다, 쫓겨가도다

잇음 속에 있는 간도(間島)와 요동(遼東)별로

주린 목숨 움켜쥐고, 쫓겨가도다

진흙을 밟으며, 해체를 마셔도

마구나, 가졌드면, 단잠은 엇말 것을-

사람을 만든 겁아, 하루 일찍

차라리 주린 목숨, 뺏어 가거라!

아, 사노라, 사노라, 취해 사노라

자폭(自暴) 속에 있는 서울과 시골로

멍든 목숨 행여 갈까, 취해 사노라

어둔 밤 말없는 돌을 안고서

피울음을 울으면, 설움은 풀릴 것을-

사람을 만든 겁아, 하루 일찍

차라리 취한 목숨, 죽어 버려라!

-이상화 '가장 비통한 기록 - 간도 이만을 보고'

#### (다)

해일처럼 굽어지는 백색의 산들, / 세질자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타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평평 쏟아져 날아오듯 덩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타이며.....

날아온다 꺼질한 굴뚝새가 /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술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 시 문학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 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 백색의 계엄령.

-최승호, '대설주의보'

- \*도단화(都團化) : 달화주. 조선 시대에, 공노비를 부리지 않는 대신에 그 중에에서 세금을 받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해제 : 시궁창에 고인 허드렛물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
- \*마구 : 마구간 \* 겁 :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 준다는 신령. 여기서는 조물주

### 87. (가)~(다)에 대한 설명 중, 어느 작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현실을 극복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형식적 틀을 의도적으로 간략하게 구성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대를 알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88. (가)~(다)를 묶어 소개하는 글을 쓰자 할 때, 그 제목으로 적절할 것은?

- ① 잃어버린 꿈과 고통의 상황
- ② 자연물을 통한 시대의 고발
- ③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 ④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 ⑤ 구원의 손길을 찾는 고달픈 사람들

### 89.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일개 무관이었던 허전은 임진왜란이라는 치욕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나라일에 힘쓰지 않고 당쟁만을 일삼고 있는 조정 대신을 비판하기 위해 국사(國事)를 농사일에 빗대어 주인이 집안의 게으르고 욕심 많은 머슴을 꾸짖는 내용의 『고공가』를 창작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은 자신을 어른 중에 빗대어 주인인 임금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쓴 이 작품을 썼다.

- ① 두 작품이 바라는 최종의 상황은 결국 가도(家道)가 제대로 선 상황이 아닐까?
- ② 나라일을 한 집안일에 비유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점은 그대로 살려 표현하고 있군.
- ③ 영의정이라는 시인의 위치가 임금님께도 할 말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여.
- ④ 국가 경영의 책임에 대한 무신의 문제 제기를 조정 대신의 입장에서 해명한 것이라 볼 수 있겠네.
- ⑤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이라는 시구에서 읽어 낼 수 있어.

### 90. 수업 시간에 (나)에 대해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의 상황	1연 : 간도나 요동벌로 쫓겨 가는 유이민의 상황 2연 : 이 땅에 남아 비참하게 살아가는 백성의 상황	①
현재의 정서	자포자기의 심정 : '차라리 주린 목숨, 뺏어 가져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②
미래 의식	절망적 현실에서 갖는 희망 : '설움은 풀릴 것을 -'을 통해 암시됨	③
표현과 효과	감탄형 어미의 사용과 시어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 비극적 정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④
		⑤

④

### 91. (다)에서 영감을 얻어 <보기>를 썼다고 가정할 경우,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을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보기

아아 병든 말[言]이다 / 발바닥이 식었다  
단순한 남자가 되려고 결심한다 / 마른 바람이  
하루 종일 이리저리 / 눈을 물고 다닐 때  
저녁에는 눈마다 흙이 묻고  
해 형상(形象)의 해가 구르듯 빨리 질 때  
꿈판도 깨고 / 찬 땅에 앞드려  
눈도 코도 입도 아조아조 비벼버리고  
내가 보아도 내가 무서워지는 / 물러 다니며 거듭 밝히는  
흙빛 눈이 될까 안 될까

-황동규, '계엄령 속의 눈'

- ① 눈이 갖고 있는 공포의 이미지는 살리되, '흙빛 눈'으로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지.
- ② 해일처럼 굽이치는 눈으로 표현한 절망적 상황을 해다운 해가 없는 상황으로 바꿔 봐야겠어.
- ③ 시의 초점을 외부 배경을 제시하는 것에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네.
- ④ 계엄령 시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계절적 배경으로 형상화하려 한 의도는 그대로 살려야겠군.
- ⑤ 현실을 이겨내려는 '굴뚝새'의 의지적인 모습을 '단순한 남자'가 되려는 결심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⑤

# 시 문학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2~96)

(가)

나이 예순이면 / 살 만큼은 살았다 아니다  
살아야 할 만큼은 살았다 / 이보다 덜 살면 요절이고  
더 살면 덤이 된다 / 이제부터 나는 덤으로 산다  
종삼(宗三)은 덤을 좀만 누리다 떠나갔지만  
피카소가 가로챈 많은 덤 때문에  
중섭(仲燮)은 진작 가버렸다  
가래 끓는 소리로 / 버티던 지훈(芝薰)도  
선의 고개턱에 걸려 그만 주저앉았다

덤을 역산(逆算)한 천재들의 밥상에는  
빵 부스러기 생선 찌꺼기 초친 것 등  
지친 것이 많다  
[A] 그들은 일찌감치 손갈을 놓았다  
소월(素月)의 죽사발이나 / 이상(李箱)의 심줄구이 앞에는  
늘 아류들이 득실거린다 / 누군가 들어키다 만  
하다 못해 맹물이라도 마시며 / 이제부터 나는 덤으로 산다.

-김광림, '덤'

(나)

참참한바위 사이를 미친듯 달려 겁겁의 봉우리에 올라니 狂奔巖石吼重巒  
지척에서 하는 사람의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人語難分咫尺間  
사람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여 常恐是非聲到耳  
잠짓 흐르는 물을 사귀 온 산을 둘러싸네 故教流水盡籠山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

(다)

……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死靈)'

## 92. (가)의 화자가 (나)의 화자를 인터뷰하여 쓸 기사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인의 현실 참여 - 그 실상과 한계를 알아보다.
- ② 바람직한 삶의 모습 - 지식인들이 산 경험을 말하다.
- ③ 인생의 이상과 현실 - 이상을 좌절시키는 현실을 파헤치다.
- ④ 자연과 인간의 조화 - 삶의 허무와 좌절의 아픔을 극복하다.
- ⑤ 지식인의 삶의 이상 - 그 현실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재조명하다.

①

## 93. (나)와 (다)의 화자가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화자 : 아직 삶의 열정을 버리지 않은 당신을 보니 부럽기만 합니다.
- ② (다)의 화자 :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사라지거나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 법이지요.
- ③ (다)의 화자 : 그런데도 왜 당신이 세상과 담 쌓고 살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④ (나)의 화자 : 저도 잠시 휴식할 뿐, 세상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 ⑤ (다)의 화자 : 그렇다면 은둔하는 삶을 버리고 빨리 세상 속으로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④

## 94. (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정적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보다 화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이용하고 있다.
- ③ 작품 속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살렸다.
- ④ 설의적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강한 실천 의지를 고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추구하는 이상을 전제로 하여 현실과 현실 속의 화자 자신을 살피고 있다.

④

# 시 문학

## 95. <보기>를 참고하여, [A]에 사용된 정서 표출 방식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이 구절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시단이 안고 있는 모방의 문제점과 정신의 궁핍화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에게 이제부터 시는 모든 것이 ‘덤’이며, 그 삶 속에서 이루어고 하는 예술 작업을 포함한 모든 것들도 앞 시대의 예술가들을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창작 행위를 자조적으로 독자들에게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보다 깊은 진실, 즉 삶과 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과 의지를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 ①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의미를 풍부하게 하였다.
- ② 이면적 의미와 상반된 표면적 의미를 내세워 전달 효과를 강화하였다.
- ③ 유사한 속성을 지닌 자연물을 이용하여 함축적 의미를 은근히 드러내었다.
- ④ 대등한 속성을 지닌 대상들을 나열하여 정서적 공감대를 높게 형성하고 있다.
- ⑤ 대상이 지닌 속성이나 부분을 통하여 전체적인 의미 전달 효과를 강화하였다.

## 96. <보기>는 (나)의 창작 배경에 대한 해설이다.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영상화된 것은?

### 보기

최치원은 신라 말기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나, 당에 유학하고 벼슬을 살다가 29세에 신라로 돌아온다. 그러나 최치원은 외직을 전전하면서, 중용되지는 못하였다. 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어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이에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당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는 등 개혁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말세의 혼란한 시기였으므로 기득권층의 시기와 의심이 많아 그의 뜻과 행동은 용납되지 못하였다. 그의 개혁 정책은 거둬지는 현실의 벽 앞에서 서서히 좌절됐다. 마침내 그 자신도 정치적 좌절의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 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희웁고  
내 마음 들되 없어 냇가에 안즈이다  
저 물도 내 안 굶도다 우리 밤길 네눈다.
- ② 슬프다 즐거이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分別(분별)할 줄 이시랴.
- ③ 비록 못 일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자한한(自閑穉) 하얏나니  
조만(早晚)에 세사(世事)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 ④ 보리밥 풋늬물을 알마초 머근 후에  
바윗긋 몹그의 슬긋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 ⑤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巢父許由) 낙뎃더라  
아마도 임천환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7~100)

### (가)

갈밭마을 젊은 아낙의 곡소리 지나간데  
관청 문을 향해 곡하고, 푸른 하늘 향해 울부짖는다.  
“남편이 출정 가서 돌아오지 않음은 오히려 있을 법 하건마는  
예로부터 사내가 생식기 잘랐다는 말은 듣지 못했대요.  
시아버지 이미 돌아가시고 아이는 아직 **배넛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삼대의 이름이 군보(軍保)에 올랐대나요.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법 같은 문지기 지켜 서고  
이정(里正)이 포효하며 마구간에서 소를 끌고 나갔지요.  
갈을 갈아 방에 드니 피가 자리에 흥건한데  
아이 낳아 곤궁을 만났다고 스스로 한탄하던 걸요.”  
더운 방에서 궁형(宮刑)을 행하는 것이 어찌 그만한 허물이 있어서라.  
민나라 사람들이 자식을 거세했던 일도 진실로 슬픈 일이라도.  
자식 낳고 시는 이치는 하늘이 부여해준 것이라서  
하늘의 도는 사내를 만들고 땅은 계집을 만들거늘,  
말과 돼지 거세함도 오히려 슬프다고 말한진대  
하물며 백성들이 자손 이을 것을 생각함에서랴.  
세도 있는 집에서는 일 년 내내 풍악을 울리지만  
쌀 한 톨, 비단 한 조각 세금 내는 일 없대네.  
우리 백성들 똑같이야 하거늘 어찌 가난하고 부유한가  
나그네 창기에서 거둬 시 구편을 읊조리대요.

-정약용, '애절양(哀絶場)'

### (나)

벼는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A]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더 **튼튼해진 백성들** 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②바람 한 점에도 / 제 몸의 노여움을 달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 이 피물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萬萬)...

-이성부, '벼'

### (다)

# 시 문학

⑥바람은 자도 마음은 자지 않는다.  
 철들어 사랑이며 추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싸움은 동산 위의 뜨거운 해처럼 우리들의 속살을 태우고  
 마음의 배고픔이 출렁이는 강기슭에 앉아

종이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

정미 들어 이제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를 짓밟고 간  
 많고 많은 이방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눈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두려움에 떠는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들과  
 두부 몇 모를 사고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며  
 골목을 돌아서는 계집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들의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

사랑은 가고 누구도 거슬러 오르지 않는  
 절망의 강기슭에 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이 땅의 어둠 위에 닳을 내린  
 많고 많은 풀포기와 별빛 이고자 했다.

-곽재구, '비림을 위하여'

### 9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땀 흘린 노동 뒤에 발견한 삶의 의미를 잔잔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 ④ 자기희생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민중의 모습을 자연물에 투영하고 있다.
- ⑤ 지배 계층에 의해 가혹하게 짓밟힌 민중들의 울분과 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 98. (가)~(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배넛꽃'은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난 현실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습으로 보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꿈'과 '미래'를 상징하는 거야.
- ② (나)의 '튼튼해진 백성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의 결속을 통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라고 생각 돼.
- ③ (나)의 '가슴'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따뜻함'과 '민음'을 상징한다고 봐도 될 거야.
- ④ (다)의 '종이배'는 어둠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망'과 '간절함'의 의미로 이해 할 수 있어.
- ⑤ (다)의 '별빛'은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희망과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

### 99. (나)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준다고 할 때, [A] 부분의 화면에 삽

### 입력 배경 음악의 노랫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어.  
 얼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 ②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 ③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소.
- ④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 주고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이편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 ⑤ 흰 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 새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은 저물고 저물도록 기계는 잘도 도네 돌아가네.

### 10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대상이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정적 대상이다.
- ③ ㉠은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와 동일한 아픔을 지니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고, ㉡는 화자의 상황을 부각시키는 비교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의 슬픔을 유발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대상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05)

(가)

눈이 많이 와서 / 산엿새가 별로 내려 맥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보다  
 한기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땡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니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엿 은뎡이\*에데가리밭\*에서  
 하로밤 뽀오한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뎡에\*같은 분들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빛날 한가하고 즐겁든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너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  
 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오졌한 마  
 음을 지나서 텃담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덕에 함박눈이 폭폭 쌓이는 여니 하로밤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  
 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위\*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꿈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냇적 큰마니가  
 또 그 집등색이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뎡엿 마을까지 들렀다는  
 먼 냇적 큰 아버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 시 문학

①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돌는 달을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이렇게  
사모치게 그리울 줄도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② 무너진 성터 아래 오랜 세월을 풍설(風雪)에 깎여 온 바위가 있다. / 아  
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 가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 한 줄기 바람  
에 조잘히 씻기우는 풀잎을 바라보며 / 나의 몸가짐도 또한 실오리 같  
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

-조지훈, '풀잎 단장'

③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그림다.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 / 바다가 어머니라면 - 하고 나는 생각해  
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안기어 날개같이 보드러운 물결을 쓰고  
맘 편히 쉬고 싶다. /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빛의 향수. 나는 찢  
어진 추억의 천막을 걷는다. 여기 모래벌에 주저앉아…….

-장만영, '향수'

④ 내 꿀방의 커튼을 걷고 /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이들이노니 / 바다  
의 흰 갈매기들갈이도 /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게 /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이육사, '황혼'

⑤ 어머니, /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산비탈 난지시 타고 내  
려오면 /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로이 풀 뜯고 /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 아무도 살  
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06~110)

(가)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은,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돌아,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라, 남북이라,  
내 몸은 떠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함은.  
물결뿐 떠돌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은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감매이는.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나)

우리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에 모여  
묵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꾼들은 왁자지껄  
주막집 뜰에서 눈을 던다.  
들과 산은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평평 쏟아지는데  
쌀값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선생이 된 면장 딸 얘기가 나오고  
서울로 식모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뱃다더라. 어떡할거나.  
술이라도 취해 볼거나. 술집 색시  
짜구려 분 뱃새라도 맡아 볼거나.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닭이라도 쳐 볼거나.  
겨울밤은 길어 목을 먹고.  
술을 마시고 물세 시비를 하고  
색시 첫갈 장단에 유행가를 부르고  
이발소집 신랑을 다루리  
보리밭을 질러 가면 세상은 온통  
하얗구나. ①눈이여 쌓여  
지붕을 덮어 다오 우리를 파묻어 다오.  
오종대 뒤에 치마를 둘러 쓰고  
숨은 저 계집애들한테  
연애 편지라도 띄워 볼거나. 우리의  
피로움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돼지라도 먹여 볼거나.

-신경림, '겨울밤'

(다)

[A] 正月은 孟春(맹춘)이라 立春(입춘) 雨水(우수) 節候(절후)로  
다. 山中澗壑(산중간학)에 氷雪(빙설)은 남아시나 平郊(평교) 廣野  
(광야)의 雲物(운물)이 變(변)호도다.

어와 우리 聖上(성상) 愛民重農(애민중농) 호오시니 懇側(간측) 호  
신 勸農綸音(권농윤음) 坊曲(방곡)의 頒布(반포)하니, 슬푸다 農夫  
(농부)들이 아쁘리 無知(무지)호들 네 몸 利害(이해) 姑捨(고사) 호  
고 聖意(성의)를 어긋소나. 山田水畝(산전수답) 相半(상반) 호게 힘  
터로 호호리라. 一年豐凶(일년풍흉)은 測量(측량)치 못하야도 人力  
(인력)이 極盡(극진)호면 天災(천재)를 免(면)호느니 저 各各(각각)  
勸勉(권면)하야 게얼니 구지 마라.

[B] 一年之計(일년지계) 在春(재춘)호니 凡事(범사)를 미리 호라.  
봄에 만일 失時(실시)호면 終年(종년) 일이 낭패되네. 農地(농지)를  
다스리고 農牛(농우)를 살펴 먹여, 직거름 직와 노코 一邊(일변)으로  
시러 너어, 麥田(맥전)의 오좁둬기 歲前(세전)보다 힘써 호소. 늙으  
니 勤力(근력) 업고 힘든 일은 못 호야도, 낮이면 이영 녀고 밤의는  
식기 꼬아, 썩 맛쳐 집 니우니 큰 근심 더덜도다. 實果(실과)나모 벗  
꽃 짜고 가지 스이 돌 썩오기, 正朝(정조)날 未明時(미명시)의 試驗  
(시험)조로 호야 보소. 며나리 닛디 말고 松菊酒(송국주) 밋호여라.  
三春百花時(삼춘백화시)의 花煎-醞(화전일취)하야 보소.

[C] 上元(상원)날 달을 보아 水旱(수한)을 안다 호니, 老農(노농)의

# 시 문학

徵驗(징험)이라 대강은 짐작하니. 正初(정초)에 歲拜(세배)흔든 敦厚(돈후)흔 風俗(풍속)이라. 시 衣服(의복) 펼쳐 놓고 親戚(친척) 隣里(인리) 서로 촛즈 老少(노소) 男女(남녀) 兒童(아동)까지 三三五五(삼삼오오) 단일 적의 와각버섯 울긋불긋 物色(물색)이 繁華(번화)하다. 산나히 蔗(연) 썩오고 계집아히 널 뛰고, 늦노라 나기하기 少年(소년) 들의 노리рода. 祠堂(사당)의 歲講(세알)히니 餅湯(빙탕)의 酒果(주과)로다. 엄파와 미나리를 무오엄의 것드리면, 보기의 新漸(신신) 하야 五辛菜(오신채) 불위하랴. 보름날 藥食(약식) 茶禮(다례) 新羅(신라) 적 風俗(풍속)이라. 목은 山菜(산채) 살마 너여 肉末(육미)를 밧글소나. 귀박히는 藥(약)술이며 부름 사는 生粟(생물)이라. 먼저 불너 더위 팔기 달마지 해불 허기, 흘러오는 風俗(풍속)이오 아희들 노리로다.

-정학유, '농가월령가'

## 106. (가)~(다)의 화자가 모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만한 생활의 모습은?

- ① 농사를 열심히 지어 부유하게 사는 삶
- ② 이웃들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 ③ 농사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 ④ 농사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속에서 유희자적하는 삶
- ⑤ 농촌을 떠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출세하고 즐겁게 사는 삶

③

## 107. (가)의 소문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경에 감메이는'은 화자의 소박한 소망이 형상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 ② '꿈꾸었노라'라는 표현은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든 화자의 소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③ '집 잃은 내 몸'이라는 표현으로 식민지의 젊은이로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겠어.
- ④ 화자가 시인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본다면 이 시에서는 현실에 대한 시인의 체념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겠어.
- ⑤ '별빛이 아득하다'는 것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그만큼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④

## 108. <보기>는 (나)의 화자가 쓴 일기이다. (나)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 보기

① 아침 일찍이 장에 가기 위해 주막에선 장꾼들이 흥성스럽다. ② 우리는 방앗간 뒷방에 모여 여느 때처럼 화투를 치며 긴 겨울밤을 함께 놀며 보냈다. ③ 밖에는 눈이 많이 와서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아늑하고 푸근하게 느껴졌다. 절절 끓는 아랫목에 정겹게 모여 앉아 시원한 목과 막걸리를 먹다보니, 구수한 이야기꽃이 핀다. ④ 농민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애환, 가난한 시골을 벗어나 도회지에서 성공한 이웃, 아픔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에 밤은 점점 깊어갔다. 밤이 깊을수록 서글픈 생각이 들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⑤ 돌아오는 새벽에는 어떤 농사를 지으면 조금 형편이 나아질까, 노총각 신세도 면해야 하는데……. 온갖 상념들이 어지럽게 떠올랐던 하루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③

## 109. (다)를 토대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 [A]~[C]를 각 장면으로 구성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생각은?

장면	소재목	구상 내용
① [A]-1	봄이 오고 있다.	장면을 빨리 진행시켜 잔설이 남아 있는 산기슭과 논밭 풍경→봄으로의 날씨 변화를 보여주자.
② [A]-2	임금님의 권면	임금이 농사를 권하는 교서를 반포하는 장면과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장면을 이중 노출의 방식으로 보여주자.
③ [B]-1	농사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에 달려 있다.	농작물을 갈무리하고 난 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풍경을 보여주자.
④ [C]-1	농사에는 연륜이 중요하다.	늙은 농부의 주름살과 지혜로워 보이는 눈동자를 클로즈업하여, 농부들이 일하는 장면과 오버랩하여 노출하자.
⑤ [C]-2	정월의 아름다운 전통과 민속놀이	대보름 음식과 귀밝이술, 더위팔기, 쥐불놀이 등의 장면을 연결하여 제시 하되 흥겨운 농악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자.

③

## 110. ㉠의 함축적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오늘은 / 눈 덮인 산야(山野)를 거닐으시네 / 눈같이 흰 옷 입으시고 / 눈보다 더욱 흰 / 맨발이시네 // 그 옛날 / 물 위를 걸으시던 / 강줄기도 얼어 / 광막한 / 수정의 빙판 / 바늘 꽂히는 / 한기(寒氣)의 / 그 위를 거닐으시네 / 희디 흰 / 맨발이시네

-김남조, '겨울 그리스도'

- ② 아, 인경이 온다. 은은히 일어나는 인경 소리에 눈이 쌓인다. 장안에 넓고 좁은 길이 눈에 매운다. 님을 못 뵈고 죽은 색시의 설움에 겨운 눈물이 눈이 되어 나린다. 먼저 해 불벼람에 지고 남은 흰 복사꽃이 죄 품은 선녀의 뜨거운 가슴에서 흘러 나린다.

-주요한, '눈'

- ③ 이 겨울의 아침을 / 눈은 나리네 // 저 눈은 너무 희고 / 저 눈의 소리 또한 그윽하므로 // 내 이마를 숙이고 빌가 하노라 // 님이여 설은 빛이 / 그대의 입술을 물들이나니 // 그대 또한 저 눈을 사랑하는가 // 눈은 나리여 / 우리 함께 빌 때러라

-박용철, '눈이 나리네'

- ④ 우리가 눈발이라면 / 허공에다 쭈뼛쭈뼛 훑날리는 / 진눈깨비는 되지말자. /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 사람이 사는 마을 / 가장 낮은 곳으로 /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 잠 못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 편지가 되고 / 그이의 길고 붉은 상처 위에 돌는 / 새 살이 되자.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⑤ 눈 내린 겨울 산 / 계곡에서 들리는 물소리뿐 / 숲은 고요하구나. / 찬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고 / 투둑 눈송이 떨어진다. / 깨끗하여라 하늘 빛같이여. / 밤의 어둔 길 / 무슨 꿈에 시달리는지 / 깨어나는 아침마다 머리가 산발인데 / 오늘 아침 겨울산 / 길이 끊어져 버렸다.

-엄국현, '하늘 아래 겨울산'

④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1~114)

(가)

# 시 문학

2

아침엔 항해(沈瀼)\*먹고 저녁엔 유하(流霞)\*로세.  
허공 능 질러가는 이 있던 말 모름지기 믿음과래.  
굽어보니 땅덩어리 너무도 아득한데,  
대봉(大鵬)\*은 잘 안 뵈고 하루살이 우글대네.

5

인간 세상 어디에도 풍파 없는 곳 없어  
날개 달고 바람 타니 큰 집이 여기 있네.  
하계(下界)엔 하루살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만 길이나 쌓인 먼지 그땀 속인 어찌하리.

-김시습, '능허사(凌虛詞)'

(나)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편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대답이다.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윤동주, '아우의 인상화'

(다)

굴원이 죄 없이 쫓겨나 강과 못 사이를 쏘다니고, 연못가 거닐며 슬픈 노래 읊조리니, 얼굴은 시름겨워 초췌해지고 형용은 비쩍 말라 아위었어라. 어부가 이를 보고 물어 말하길, “그대는 삼려대부\* 아 니십니까? 이런 곳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굴원이 대답하여 말하 기를, “온 세상이 모두가 흐려 있는데 나 혼자만이 맑고 깨끗하며, 못 사람들 모두가 취해 있는데 나 혼자만 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 서 그만 이렇게 쫓겨났구나.” 어부가 이 말 듣고 말하기를, “성인 은 사물에 막힘이 없어 세상과 추이(推移)르 같이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흐려 있다면 어찌서 진흙물 흙탕질을 쳐 그 물결 더 높이 일으 키질 않으며, 못 사람 모두가 취해 있다면 그 술지게미 배불리 먹고 박주나마 마셔 두지 않고서 어찌서 깊이 생각하고 높이 행동해 스스 로 쫓김을 불렀습니까?” 굴원이 이 말 듣고 다시 말하기를, “내 일 짝이 이런 말 들은 적이 있노라. ‘새로 머리 감은 이는 갓 먼지 털어 쓰고 새로 몸을 닦은 이는 옷을 털어 입는다.’ 그러니 어찌 이 깨끗 한 내 몸으로 저 더러움을 받을 수 있으리요? 차라리 상수 물가로 달 러 가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낼지언정, 어찌 이 희고 깨끗한 내 몸으 로 세속의 티끌을 뒤집어 쓸 수 있으리요?” 어부가 듣고서 빙그레 웃 고는 돛대를 울리며 가면서 노래하길, ‘창랑\*의 물결이 맑을 때에는

이 내 갓끈을 씻을 수 있고, 창랑의 물결이 흐릴 때에는 이 내 발이나 씻어 보리라.’ 마침내 가 버리곤 말이 없구나.

-굴원, '어부사'

\*항해(沈瀼) : 한밤중의 이슬 \*유하(流霞) : 신선이 마신다는 좋은 술의 이름  
\*대봉(大鵬) : 하루에 구만 리(里)를 날아간다는, 매우 큰 상상(想像)의 새.  
\*삼려대부 : ① 중국 춘추 시대에, 초나라의 소(昭)·굴(屈)·경(景)의 세 귀족 집안을 다스리던 벼슬. ② '굴원'의 다른 이름. 굴원이 이 벼슬에 있었던 것에서 유래함.  
\*창랑 : 넓고 큰 바다의 맑고 푸른 물결

## 111. (가)~(다)의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② 세상은 어찌 이리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가?
  - ③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온몸을 바쳐야 하는가?
  - ④ 나를 위한 삶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⑤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가?
- ①

## 11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다)의 화자는 미래에 대해 낙관하며 삶의 희망을 찾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위기가 닥친 현실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극한적인 상황이 초래한 절망감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 ②

## 113. (나)의 화자가 20년 뒤에 (가)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심경의 변

화를 가장 잘 지적한 것은?

- ① 덧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헤어날 줄 몰랐던 옛날이 부끄럽다.
  - ②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행복하다.
  - ③ 온갖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 ④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룬 지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 ⑤ 예전에는 작은 진실만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좀 더 큰 진실을 바라보고 싶다.
- ③

## 114. <보기>는 (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보기>의 내용에 견주어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시 문학

## 보기

※백이·숙제 : 두 사람은 고죽국의 왕자였는데 선왕이 죽은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결국 모두 나라를 떠나 덕이 있다고 알려진 주나라 서백창에게 가서 의탁하려 했다. 마침 서백창은 죽고 그 아들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치려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부왕의 장례도 치르기도 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의에 어긋난다 하여 말했다. 끝내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우자, 두 사람은 주나라의 수양산에 몸을 숨기고,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

- ① '은 세상 모두가 흐려 있다'는 현실 인식은 백아숙제의 문제 의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 ② '스스로 쫓김을 불렀다'는 것은 백아숙제가 수양산에 몸을 숨긴 행위와 비교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담고 있다.
  - ③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낼지언정'은 백아숙제처럼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롭지 않은 것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④ '세속의 티끌을 뒤집어 쓸 수 있으리오?'는 고사리를 캐먹으며 신념을 지키는 백아숙제의 자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 ⑤ '나 혼자만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인의에 어긋난 왕을 말리는 백아숙제의 독야청청하는 자세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
-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5~119)

### (가)

山僧食月色      산에 사는 스님 이 달빛을 탐내어  
 井汲一瓶中      병 속에 물과 달 을 함께 길었네.  
 到寺方應覺      절 에 돌아와 비로소 깨달았으리.  
 瓶傾月亦空      병을 기울이면 달도 따라 비게 되는 것을.

-이규보, '영정중월(詠井中月)'

### (나)

병풍은 무엇에서부터라도 나를 끊어준다.  
 등지고 있는 얼굴이여  
 주검에 취(醉)한 사람처럼 멋없이 서서  
 병풍은 무엇을 향(向)하여서도 무관심(無關心)하다.  
 주검의 전면(全面)같은 너의 얼굴 위에  
 용(龍)이 있고 낙일(落日)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설움 이라고 하면서  
 병풍은 허위(虛僞)의 높이보다도 더 높은 곳에  
 비폭(飛瀑)\*을 놓고 유도(幽島)\*를 점지한다.  
 가장 어려운 곳에 놓여 있는 병풍은  
 내 앞에 서서 주검을 가지고 주검을 막고 있다.  
 나는 병풍을 바라보고  
 달 은 나의 등 뒤에서 병풍의 주인 육칠옹해사(六七翁海士)의  
 인장

(印章)을 비추어주는 것이었다.

-김수영, '병풍'

### (다)

이별은 손 끝에 있고  
 서러움 은 먼데서 온다  
 강 언덕 풀잎들이 돌아나며  
 아침 햇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그늘 속에  
 산뱃꽃은 피어서 희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은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 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 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 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저문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김용택, '사람들은 왜 모를까'

\*비폭(飛瀑) :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 \*유도(幽島) : 도달할 수 없는 외딴섬

## 115. (가)~(다)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의 화자는 자연물 또는 시적 대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의 화자는 이별한 대상을 추억하며 재회를 확인하고 있다.
  - ④ (가)~(다)의 화자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⑤ (가)~(다)의 화자는 이상과 현실의 대립으로 인해 고뇌하고 있다.
- ②

## 116. 시어들을 중심으로 (가)~(다)를 비교해 보았다.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스님'과 (나)의 '육칠옹해사'는 화자에게 자족과 여유 있는 삶의

# 시 문학

모습을 보여준다.

- ② (가)의 '달'이 세속적 이미지임에 비해, (나)의 '달'은 탈속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 ③ (가)의 '질'은 생명이 소멸하는 공간, (다)의 '강 언덕'은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 ④ (나)의 '낙일'과 (다)의 '저문 산'은 모두 하강 이미지로, 화자의 현실 상황을 부각시킨다.
  - ⑤ (나)의 '설움'이 단절해야 할 정서라면, (다)의 '서러움'은 수용해서 극복해야 하는 정서이다.
- ⑤

## 117. (가)를 배운 후, 공익 광고를 만들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 <조건>

- ▷ (가)의 주제를 잘 살릴 것
- ▷ (다)의 ㉠에 사용된 시적 발상을 이용할 것
- ▷ 역설법을 이용할 것

- ①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 ②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 ③ 자신을 낮추어야 진정 높아집니다.
  - ④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 ⑤ 세상을 보기 전에 주위를 먼저 보십시오.
- ①

## 118. <보기>는 (나)에 대해 탐구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과제 해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작(詩作) 동기는?

문상(問喪)와서, 주검을 가리고 있는 '병풍'을 보며 촉발된 상상력을 시로 묘사하고 있다.

①

#### ▶ 시적 제재인 '병풍'의 역할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는 사물이다.

②

#### ▶ 화자의 정서는?

죽음을 떠올리며 느끼는 애상감과 상실감이 잘 드러나 있다.

③

#### ▶ 표현상의 특징은?

· 전통적 소재를 사용하여 죽음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④

· 개인적 감상에 빠지지 않는 절제미가 돋보인다.

⑤

③

## 119. (다)를 배운 후 <보기>의 시를 떠올렸다면, 연상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렵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 '국화 옆에서'

- ① 모순되는 진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 ②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 ③ 현실의 고난에 대응하는 화자의 실천적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 ④ 우주와의 교감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되는 과정을 보여 주기 때문에
  - ⑤ 모든 존재는 완성을 위해 고독과 고통을 거치게 됨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에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20~124)

### (가)

누님의 치맛살 곁에 앉아  
누님의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심심한 때는  
골목을 빠져 나와 바닷가에 서자.

비로소 가슴 울렁이고 / 눈에 눈물 어리어  
차라리 저 달빛 받아 반짝이는 밤바다의 진정할 수 없는  
괴로운 꽃비늘을 닦아야 하리.

친하에 많은 할 말이, 친상의 많은 별들의 반짝임처럼  
바다의 밤물결되어 찬란해야 하리.  
아니 아파야 하리.

이윽고 누님은 섬이 떠 있듯이 / 그렇게 잠들리.

그때 나는 섬가에 부딪치는 물결처럼 누님의 치맛살에 얼굴을 묻고  
가늘고 먼 울음을 울음을,  
울음 울리라.

-박재삼, '밤바다에서'

### (나)

한 개 돌 속에  
하루가 소리 없이 저물어 가듯이

# 시 문학

그렇게 읊거이 가는  
정연(整然)한 움직임 속에서

소조(蕭條)\*한 시야(視野)에 들어오는 / 미루나무의 나상(裸像)  
모여드는 원경(遠景)을 흔들어 줄 / 바람도 없이

이루어 온 밝은 빛깔과 보람과  
모두 다 가라앉은 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면

끝 가지 아슬히 사라져 / 하늘이 된다.

-정한모, '멸입(滅入)'

(다)

세상에선 모두들 붉은 모란꽃만 사랑하여  
정원에 가득히 심고 가꾸네  
누가 이 거친 초야에  
① 좋은 꽃떨기 있는 줄 알기나 하라  
예쁜 모습은 연못 속의 달을 꿰뚫었고  
향기는 발두렁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 귀공자 적어  
아리따운 자태를 ㉡ 농부에게 붙이네

世愛牡丹紅  
栽培滿院中  
誰知荒草野  
亦有好花叢  
色透村塘月  
香傳樹風  
地僻公子少  
嬌態屬田翁

-정승명, '석죽화(石竹花)'

\*소조(蕭條): 호젓하고 쓸쓸함

\*석죽화(石竹花): 패랭이꽃

120. (가)~(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바탕으로 작품 창작 동기가 드러나도록 주제를 표현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이라는 존재 - 삶에 대한 아픈 인식과 대응
  - ② 인간의 근원적 슬픔 - 본성을 상실해 가는 슬픈 군상
  - ③ 인간의 나약성 - 어쩔 수 없는 숙명에 순응하는 동물
  - ④ 인간의 욕망 - 그 끝없는 탐욕과 좌절의 뒤섞임
  - ⑤ 인간의 가치 -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
- ①

121. (가)와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보기 ■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 울리며 울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 ㉠ (가)의 '별'은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을 의미한다.
- ㉡ <보기>의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 ㉢ (가)의 '섬'은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수 없는 누이의 소외감을 드러낸다.
- ㉣ <보기>의 '섬'은 화자 자신의 외로움과 고립적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⑤

122. (가)에서, 화자가 누이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관계 깊은 말은?

- ① 애이불비(哀而不悲)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③ 경이원지(敬而遠之)
  - ④ 초록동색(草綠同色)    ⑤ 오불관연(吾不關焉)
- ②

12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시각적 이미지로 작품을 전개해 나간다.
  - ② 가을에 느끼는 적막감과 상실감에서 연상이 시작된다.
  - ③ 지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로 시상이 상승하고 있다.
  - ④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절제된 감정과 정적 분위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④

124. (다)와 <보기>의 작품을 비교 감상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 시 문학

## 보기

거친 밭 언덕 적막한 들레에	寂寞荒田側
① 탐스런 꽃송이가 부드러운 가지를 누르고 있네.	繁花壓柔枝
비 그치자 퍼져오는 매화의 향기도 가볍고	香輕梅雨歇
보리밭에 부는 바람에 꽃 그림자 기우네.	影帶麥風歌
② 수레 탄 사람 어느 누가 보거나 할까	車馬誰見賞
③ 별 나비만 모여들어 엿보네	蜂蝶徒相窺
천한 곳에 생겨남이 스스로 부끄럽고	自慙生地賤
세상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堪恨人棄遺

-최치원, '촉규화(蜀葵花)'

- ① ㉠과 대응되는 시어는 ㉡이고, ㉢에 대응되는 시어는 ㉣이다.
- ② (다)와 <보기> 모두 세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있다.
- ③ ㉢은 화자가 우호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나, ㉣는 비우호적 대상이다.
- ④ (다)는 나름대로 자기 위로의 방안을 찾고 있으나, <보기>는 그렇지 못하다.
- ⑤ (다)와 <보기> 모두 화자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대상이 제시되어 있다.